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 평가
연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학술 연구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우리나라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 평가연구』

2015. 11.

연구기관 : (사) 국제고용개발원 

국무조정실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무조정실 수탁연구과제 『우리나라 ODA의 국내 파급
효과 평가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1.

(사)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 정인수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정인수 ((사)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 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연구자 : 최대용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II. 문헌연구	5
1.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	5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 연구.....	6
3.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연구	7
III.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틀	8
1. 본 연구에서 사용할 계량분석 모델과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	8
2.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틀	8
3. 기타 보조적 분석틀.....	18
IV.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결과: 분석틀을 이용한 결과	20
1. 경제파급효과: 베트남 사례 분석	20
2.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	29
3.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 종합결과	50
V. ODA의 국내 파급효과: 기타 보조적 분석틀에 의한 결과	52
1. OD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	52
2. ODA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	57
3. ODA의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효과 분석결과: 베트남 사례 분석결과	59
VI.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63
1. 요약	63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의미와 한계	67
참고문헌	71

부록: 스위스 ODA의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효과	74
: Carbonnier et al. (2012)의 GDP 효과 연구방법론	

표 목 차

<표 1> 사회문화부문 지수 구성	16
<표 2> 데이터(거시경제변수 및 ODA액수)	20
<표 3> 종속변수 : ln_consumption	21
<표 4> 종속변수 : ln_consumption	21
<표 5> 종속변수 : ln_Export	23
<표 6> 종속변수 : ln_Export	23
<표 7> 종속변수 : ln_vn_Export	24
<표 8> 종속변수 : ln_vn_Export	25
<표 9> 종속변수 : Investment	26
<표 10> 종속변수 : Investment	27
<표 11> EC의 3년간 변화율	28
<표 12> GfK 국가브랜드 구성요소	31
<표 13> 한국의 GfK-Anholt National Brand Index(GfK-NBI) 추이	31
<표 14> 정책컨설팅 지수	33
<표 15> 정책자문 외주위탁사업 비율	33
<표 16>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주제별 보고서	34
<표 17> KOICA 개발조사사업의 규모	34
<표 18> KOICA 초청연수실적	35
<표 19>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도	36
<표 20> 해외봉사자 실적	37
<표 21> KOICA 일반봉사단 경쟁률 및 선발비율	38
<표 22> WFK 출신 취업현황	38
<표 23> WFK 파견 봉사자 실적	39
<표 24> 민간단체 파견봉사단 실적	40
<표 25>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참여대학 추이	41
<표 26> 이해증진사업 사업 참여 대학 수 및 사업 예산 규모변화	42
<표 27> 국제개발이해증진 사업 참여대학	43
<표 28> 연도별 ODA 관련 논문/학술 게재	44
<표 29> 한국어 교원 자격시험 응시자수와 합격자수	45
<표 3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수	45
<표 31> KOICA 글로벌 CSR 사업 규모 및 민간참여 현황	46
<표 32> 교육문화영향지수	47

<표 33> 사회문화부문의 파급효과	47
<표 34> ODA 수원국 관계자의 ODA 공여국에서의 직업훈련 개수	54
<표 35> ODA 공여국의 ODA 수원국에의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자 수	54
<표 36> 베트남에의 한국의 ODA 유상, 무상액수 및 GDP에 대한 효과	60
<표 37> 한국의 한계소비성향	60
<표 38> ODA의 고용효과 (2005-2013)	61
<표 39> 고용의 GDP에 대한 탄력성 (2005-2013)	61
<표 40> EDCF 사업에서의 한국산 사용액(예상치)	62
<표 41> KOICA의 1991-2013년간 대 베트남 ODA사업 프로젝트 현황	62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인 국내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ODA사업은 공여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수원국을 도와주는 데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ODA사업의 효과는 수원국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주안점을 두지만 공여국에도 ODA를 통해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영향이 있다. ODA사업을 통해 수원국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 공동 번영의 인도적이고 숭고한 목적이 달성되고 공여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을 파악하고 공유하게 된다면 이는 ODA사업에 대한 인식의 증진뿐만 아니라, ODA사업의 확대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조사하여 평가 틀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가 제기된 데에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ODA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데 따라 ODA 관련 국내에서 참여하는 분야와 전문가 등 참여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효과를 점검하며 정책적인 개선의 여지를 찾아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그동안 ODA사업의 추진 성과를 제고하고 사업의 직접적 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공여국에 피드백 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연구는 미미하였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적었다는 것은 그 연구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바도 있다. 우선, ODA 파급효과는 일차적으로는 수원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여국으로 전파되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나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파급효과를 경제적인 것과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나누어 접

근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여국, 즉 주로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ODA의 기본 목적은 ODA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이다. 하지만 ODA 공여국의 입장에서조차 부차적인 효과로서 공여국 자체의 국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ODA의 국내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의 종합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에 관해 살펴본 결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스위스와 독일, 호주 등 몇 개 논문에 불과하였다.

이들 연구는 그 계량분석의 목적 함수를 ODA의 국내소비, 수출, 투자 등에 대한 효과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Employment) 등 종합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는 ODA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공여국 입장에서 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한다는 목적과 명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국내 파급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계량화된 자료나 이를 지수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인식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효과를 제외하고는 국내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는 제II장의 문헌연구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독일, 스위스, 호주 등지에서 연구된 논문은 10여 편에 불과하다. 그것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회귀분석(OLS)을 이용한 국내소비, 수출, 투자에 대한 간단한 효과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우선, ODA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샘플 수가 적고, 국내 경제의 효과를 봄에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중요 변수들만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경제효과만 파악하는 측면이 컸다.

한편, ODA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에 대한 연구는 스위스의 경우가 유일하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경우는 ODA의 성격이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고,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밀집해 있으며, ODA 자금 자체가 스위스 국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가능하다.

스위스의 ODA 성격이 다른 나라의 ODA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위스 ODA의 내용이 수원국에서의 직접 사업이나 프로젝트보다는 컨설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그 인건비가 스위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높다¹⁾. ODA 관련 데이터인 OECD/statistics/DAC/CRS를 보아도, 스위스의 경우에는 무상원조(grant)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²⁾, UN 본부 및 다수의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위치하고 ODA 사업 중 컨설팅성격의 사업 내용³⁾은 많은 부분 스위스 내에서 소비된다⁴⁾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ODA 자금을 수원국에서 사용하는 다른 공여국에서는 스위스와 같은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이외 다른 나라에서 국내총생산과 고용에 대한 ODA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에 대한 연구는 참고용으로 부록에서 소개한다.

한편, 국내 파급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계량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량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위시한 사회문화적 가치로 한국에 대한 호감과 선호도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ODA 공여로 인한 수원국에서 국내 기업 및 기업제품에 대한 선호 상승과 장기적으로 상품 매출 증가 전망 등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1) Carbonnier, G., A. Schonenberger, M. Azrin-Nejardan, L. La Spanda and M. Ouni (2012)의 연구에 의하면 2006-2010년 사이 스위스 ODA의 GDP에 대한 효과는 6-8%로 나타남.
2) 2013년 OECD Statistics ODA 통계를 보면, 스위스는 grants가 2484.82 millionUS\$로서 전체 ODA 액수 2505.59 millionUS\$의 99.2%를 차지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2013년 grants가 809 millionUS\$로서 전체 ODA액수의 61%를 차지함.
3) 국제기구를 통해 지불되는 사업들, 전문가 파견, 장학금 등으로 분류되는 컨설팅성격의 광범위 TA(Technical Assistance)로 분류되는 사업내용
4) 스위스의 2013년 DAC Peer Review 및 스위스의 ODA 기관인 SDC 웹사이트를 참고바람.

그런 점에서 본 보고서는 ODA사업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국내 파급효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량화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화 방법론은 외국의 전문 학술지에서 발표된 모델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ODA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해 계량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계량분석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 측면을 평가해 봄으로써 국내 파급효과의 전반적인 면을 골고루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OD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향후 ODA사업 효과를 비교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량화된 그리고 정성적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사 연구를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의 가치도 지닌다.

특히, 국내 파급효과의 전체적인 분석틀만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ODA 액수의 20%를 차지하는 베트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모델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모델의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가치가 있다.

한편, 한국의 ODA가 스위스의 ODA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스위스에서와 같은 ODA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 효과를 연구방법론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대리적 방법론으로서 거시경제 분석에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ODA 자체가 일정 부분 국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집행되는 비율을 찾아내어 ODA의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그 분석 결과도 보론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ODA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문헌연구를, 제Ⅲ장에서는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 그 분석틀에 맞추어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ODA의 국내 파급효과의 정성분석 및 ODA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 효과에 대한 승수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논문의 한계와 차후 연구 과제를 논한다.

Ⅱ. 문헌 연구

1.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연구

ODA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선진 공여국에서의 연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10편 정도 있는데, 그 연구 주제는 주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OD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출(Export), 투자(Investment), 소비(Consumption) 부문에 대한 효과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 2008년부터 ODA의 국내총생산(GDP), 고용(Employment) 부문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는데, 스위스의 ODA는 대부분 정책컨설팅에 치중되어 ODA 예산의 대부분을 스위스 내에서 소비하고, 스위스 내 국제기구가 많아 국제기구를 통한 ODA도 스위스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위스 ODA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에 대한 효과는 한국의 ODA의 국내총생산과 고용의 효과를 다루는 데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ODA의 추정효과에 대한 연구의 국내 평가의 틀로 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⁵⁾

○ ODA의 Export, Investment, Consumption 부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의 연구 (1)~(6)을 들 수 있다.

(1) Arvin, B. M. and C. Baum (1997), "Tied and United Foreign Aid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Keio Economic Studies* 34(2), pp.71-79.

(2) Zarin-Nejardan, M (2008), *The Impac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n Donor Country Exports: Some Empirical Evidence for Switzerland*, Working paper No. 08-01, Neuchate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Univ. of Neuchatel.

(3) Arvin, B. M. and S. Choudry (1997), "United Aid and Exports: Do United Aid Disbursement Create Goodwill for Donor Export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8(1), pp.9-22.

(4) Vogler-Ludwig, K., S. Schonher, M. Taube and H. Blau (1999),

5) ODA의 국내 GDP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방법론은 부록에서 소개한다.
구체적 내용은 page 3의 스위스 ODA 성격에서 설명하였으니 참조바람.

『Die Auswirkungen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auf der WirTSFhaftsstandort DeuTSFhland』, Munchen: Weltforum Verlag.

- (5) Nowak-Lehmann, F., I. Martinez-Zarzoso, S. Klasen and D. Herzer(2009) “Aid and Trade: A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7), pp.1184-1202.
- (6) Roy, K and Y. Vadlamudi (1993) “Aid and Its Impact on the RECEipient and Donor: A Case Study”, *Banca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185, pp.189-204.

○ ODA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 부분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 아래의 연구 (7)~(8) 이다.

- (7) Schmacher, D. (1988), 『Entwicklungshilfe, Ausfuhr und Beschäftigun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s Institut fur WirTSFhaftsforSchung,Beitragezur StrukturforSchung, HECT 101(Berlin: Dunker & Humbolt).
- (8) Carbonnier, G., A. Schonenberger, M. Azrin-Nejardan, L. La Spanda and M. Ouni (2012), 『Retombées économiques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en Suisse: étude 2010』, Résumé synthétique, DDC/SECO,

2.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 연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에 대한 연구는 손혁상·한재광에 의해 연구되어 2014년(12월)에 출간된 KOICA의 『글로벌 CSR 프로그램 종합평가보고서』의 해외프로그램 평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 칠릉시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훈련사업과 모잠비크 마니싸 지역 빈곤퇴치 지원사업에서의 평가 부분에 OD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적 부분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

또한, KOICA 자체의 내부 자료인 『ODA 아국(我國) 기여효과』에서 정성적 경제효과 분석 부분이 참고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3.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연구

ODA의 국가브랜드 제고에 대한 연구로는 강성진 외(2012)가 있다⁶⁾. 그 내용은 종속변수로서 국가브랜드의 대리변수인 국가위험도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독립변수로는 ODA 여부, GDP, 1인당 GDP, 인플레이션률, 자본개방도 지수(Chinn-Into, 2005), 정치위험도 지수(ICRG의 Political Risk Composite Index)를 사용하여, OLS, Random effect, Chamberlain 추정이라는 3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ODA가 국가위험도를 약 6-7% 낮추며 즉, 국가 브랜드 가치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비모수적 성향 일치 추정 결과에 따르면, ODA가 10% 유의수준 하에서 국가위험도를 평균 3.1% 감소시키는, 즉 국가브랜드를 3.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와 국가브랜드 가치에 대한 연구로 김유경·이효복(2010)⁷⁾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ODA의 적극적 추진이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수원국 국민(필리핀 Lipa City 와 인도 켈커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ODA 인식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태도, 한국 관광 및 제품 구매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한국 제품 구매의도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 인식과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간의 관계는 t 값이 3.958 유의수준 0.05에 충족되는 유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구조모형 분석에서 ODA 긍정적 인식이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35이고, 국가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한국 관광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24와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09로 나타났다.

6) 강성진 외 (2012), “공적개발원조(ODA)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통상 연구』, 제17권 제2호, pp.51~71 참조.

7) 김유경·이효복 (2010), “공적개발원조(ODA)가 국가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광고학 연구』, 제21권 제2호, pp.21~51 참조.

III.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틀

1. 본 연구에서 사용할 계량분석 모델과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⁸⁾

본 연구에서는 ODA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 기존 문헌에서 방법론을 원용하여 나름대로의 분석틀을 만들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기존 연구의 계량분석 모델은 아래와 같다. 이 방법론은 간단하지만 학술지에 발표된 검증된 방법론이고, 전체적인 거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

- ① ODA의 국내소비에의 영향 분석: Roy. and Vadlamudi (1993)
- ② ODA의 수출에의 영향 분석: Vogler-Ludwig et al. (1999)
- ③ ODA의 국내 투자에의 영향 분석: Roy and Vadlamudi (1993)

위의 선행 연구들은 각각 ODA의 국내소비, 수출, 투자에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간단히 그들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소비, 수출, 투자에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효과와 비교한다.

2.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틀

가. 분석틀의 개요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틀은 크게 계량적 분석틀과 정성적 분석틀로 나누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ODA 자체가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성격이므로 국내 파급효과에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계량화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실 계량화할 수 없는 현실적 부분도 많으므로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계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계량적 분석틀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로 나누어 지수

8) 사회문화적 부분에 대한 기존연구와의 관련성은 page 13에서 상세히 기술하니 참고바람.

화 하여 지수의 변화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를 살펴본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나누어 ODA가 국내소비(Consumption), 수출(Export) 및 투자(Investmen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후, 회귀분석 결과 ODA가 각각의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계수 값의 유의성과 유의할 경우 계수 값의 크기를 지수화하여 사용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볼 때, ODA가 국내총생산(GDP)과 고용(Employment)에 미치는 효과를 보조적 지표로서 보고한다. 이 지표는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ODA의 승수효과 산출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는 수준이므로 엄밀성에서 약하다고 판단되어 주된 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 사용한다. 따라서 ODA의 경제파급효과의 전체 분석들에서는 산입하지 않으며 본 장의 제5절에서 따로 다룬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모형은 제II장의 문헌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가 ODA의 국내 파급효과에 미치는 경제적 분석에 주로 사용하는 종속변수를 국내소비, 수출, 투자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이 모형을 받아들인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ODA와 관련하여 수원국에서 발생한 효과로부터 파급되는 것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행위로 우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효과를 평가한다.

ODA 수원국의 효과로부터 공여국인 우리나라에 파급되는 효과가 일차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파급효과는 복잡적이고 시간 소요적이며 집적화되어야 감지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ODA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사업 등의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활동과 현상을 수치화하여 지수로 구성한다. 이런 계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수로 ①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② 국내 전문가에 의한 정책컨설팅 및 개발협력 자문, ③ 이러한 컨설팅 자문과 연계하여 수원국 인사들의 초청연수 및 유학, ④ ODA 이상(理想)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참여하는 해외봉사 활동, ⑤ ODA 관련 교육연구 활동과 수원국에서 문화 수요가 있어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응적 활동 등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지수와 계량지표에 관해서는 다음의 ODA의 국내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부분에서 상론한다.

나. ODA의 국내 경제파급효과(국내소비, 수출, 투자에 미치는 효과)

1) ODA 증가의 국내소비(Consumption)에의 영향

모델은 Roy and Vadlamudi (1993)의 ODA의 국내소비에의 영향 연구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모델 (1)이지만, 거시변수들의 1년 후의 영향을 반영하여 래그항(lag)을 넣은 모델 (2)도 사용한다.

래그항은 모델 (2)와 같이 1년 래그항을 사용할 수도, 2년 래그항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ODA가 공식적으로 OECD-DAC에 가입한 것이 2010년부터이어서 데이터의 관측치가 적기 때문에 래그항은 가능하면 적게 사용한다.

$$\ln(\text{CON})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INT} + d \cdot \text{PRI} + e \cdot \ln_ODA_A + f \cdot \ln_ODA_others + \text{error} \text{ ----- (1)}$$

$$\ln(\text{CON})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INT} + d \cdot \text{PRI} + e \cdot \ln_ODA_A + f \cdot \ln_ODA_A_1 + g \cdot \ln_ODA_others + h \cdot \ln_ODA_others_1 + \text{error} \text{ --- (2)}$$

이때, CON은 소비(consumption) , ln(CON) 은 CON의 자연대수값
 INT는 이자율 (interest rate)
 PRI 는 물가상승률 (price level)
 ln_ODA_A는 특정국가 A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others 는 A국가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A_1, ln_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lag 항

이때, ODA의 국내소비에의 영향은 ODA_A의 계수의 유의도와 계수 값의 크기로부터 판단한다.

2) ODA 증가의 한국의 수출(Export)에의 영향

모델은 Vogler-Ludwig et al. (1999)⁹⁾의 ODA의 국내 수출에의 영향 연구 모델을 사용한다 (모델 (3)). 한편, 거시변수들의 2년 후의 영향을 반영하여 래그항(lag)을 넣은 모델 (4)도 사용한다. 수출에의 영향에는 1년 래그항이 유의치 않아 2년 래그(lag) 모델을 사용하였다.

$$\ln(\text{export}) = a + b \cdot \ln_GDP + c \cdot \ln_oda_A + d \cdot \ln_oda_others + \text{error} \text{ ----- (3)}$$

$$\begin{aligned} \ln(\text{export}) = a + b \cdot \ln_GDP \\ + c \cdot \ln_oda_A + d \cdot \ln_oda_A_1 + e \cdot \ln_oda_A_2 \\ + f \cdot \ln_oda_others + g \cdot \ln_oda_others_1 \\ + h \cdot \ln_oda_others_2 + \text{error} \text{ ----- (4)} \end{aligned}$$

이때, export 는 한국의 수출액

GDP는 국내총생산, ln_GDP 는 GDP의 자연대수 값

ln_ODA_A는 특정국가 A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others 는 A국가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A_1, ln_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lag 항

ln_ODA_A_2, ln_ODA_others_2 은 각각 2년 후 래그(lag) 항

가) A국가에 대한 ODA 증가의 A국가에로 한국 수출(Export) 영향

ODA의 증가가 한국 수출 전반적 증가도 살펴볼 수 있지만 특정국가 A에 로의 수출 증가도 분석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식 (3-1)과 식 (4-1)은 동일한 모델 Vogler-Ludwig et al. (1999)을 이용하여 특정국가 A에 대한 ODA의 증가가 그 A국가에로의 수출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모델이다.

$$\ln(A_export) = a + b \cdot \ln_GDP + c \cdot \ln_oda_A + d \cdot \ln_oda_others + \text{error} \text{ ----- (3-1)}$$

$$\begin{aligned} \ln(A_export) = a + b \cdot \ln_GDP \\ + c \cdot \ln_oda_A + d \cdot \ln_oda_A_1 + e \cdot \ln_oda_A_2 \\ + f \cdot \ln_oda_others + g \cdot \ln_oda_others_1 \\ + h \cdot \ln_oda_others_2 + \text{error} \text{ ----- (4-1)} \end{aligned}$$

9) 독일의 ODA가 독일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때, A_export 는 한국의 A국가에로의 수출액
 GDP는 A국가의 국내총생산, ln_GDP 는 GDP의 자연대수 값
 ln_ODA_A는 특정국가 A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others 는 A국가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A_1, ln_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lag 항
 ln_ODA_A_2, ln_ODA_others_2 은 각각 2년 후 래그(lag) 항

3) A국가에 대한 ODA 증가의 한국 투자(Investment)에의 영향

모델은 Roy and Vadlamudi (1993)의 ODA의 국내 투자에의 영향 연구 모델을 사용한다.

$$\text{Inv}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sav} + d \cdot \text{int} + e \cdot \text{CAP} + f \cdot \text{oda}_A + g \cdot \text{oda_others} + \text{error} \text{ ----- (5)}$$

$$\text{Inv}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sav} + d \cdot \text{int} + e \cdot \text{CAP} + f \cdot \text{oda}_A + g \cdot \text{oda_others} + h \cdot \text{oda}_A_1 + i \cdot \text{oda_others}_1 + \text{error} \text{ ----- (6)}$$

이때, Inv 는 한국의 투자율
 GDP는 국내총생산,
 sav 는 한국의 저축률
 int 는 한국의 이자율
 CAP 는 한국의 자본유입액
 ODA_A는 A국가에 대한 한국의 ODA 액수
 ODA_others 는 A국가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
 ODA_A_1, 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래그(lag) 항

다. ODA의 국내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수 구성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는, ODA사업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성과와 변화 및 중장기적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계획상 목표·목적과 관련하여 수원국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여기서 파생하여 공여국에 전파되거나 강화되는 효과, 간접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영되는 사회문화적 효과로 공여국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부수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와 한국과의 교류협력이 증진 및 발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경제부문에서 주로 다루는 소득,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경제 변수의 효과를 제외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영향을 평가한다. 사회문화부문의 효과와 영향은 인과관계가 복잡적이고 효과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내포하고 표현하는 측면이 있어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해주는 정책 지식과 경험 전수를 위한 지식공유 사업(KSP), 수원국의 공무원과 전문가 초청연수가 특징적이다. 이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ODA 준비계획 단계에 요구되는 지역전문가, ODA 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전문가, 초청연수 시설, 강사, 교재, 국내 수용능력, 각 분야별 사업 전문가 및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등 고급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에 부수하여 ODA 체험 및 학교, 청년층에 대한 교육 실시에 따른 효과로 교육과정 증가, 교육 참여자, 해외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발전, 대학의 교과과정 등을 ODA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ODA사업으로 국민들이 자부심과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효과이다.

ODA사업을 통해 공여국인 국내에 미치는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ODA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과 국력, 그리고 수원국과 타국에서 공여국에 대한 인정과 존경 등이 있을 수 있다. 대외원조정책은 국가의 이해관계와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태주, 2003). 최근에는 ODA가 외교 역량과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최고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ODA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관심 지역에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외교적 실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오종진, 2011).

둘째, 우리나라 ODA사업 중 국내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정책컨설팅 사업이다. 정책컨설팅은 크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과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EEP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원국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공여국인 우리나라가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사회·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제도자문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전문가 참여활동과 정책경험 전수에 따른 교류협력 확대 등의 파급 영향이 크다.

셋째, ODA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수원국의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초청 유학생으로부터 파급되는 효과이다. 이들이 수원국인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효과는 한국의 사회문화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원국 인사들이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청연수 사업이 확대된다면 이에 따라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도 증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는 이러한 초청연수자의 수와 규모, 추세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다.

넷째, 우리나라 ODA사업의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가 큰 부분이 해외봉사 분야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국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인류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국내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다시 말해, 개발원조 사업은 살아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장이며, 국제이해교육의 실천의 장이다.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선진국 만들기를 국민의 마음에 내면화하는 시도다(이태주, 2003).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하여 국제무대에 진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국내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공공과 민간부문에 걸쳐 이루어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NGO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ODA와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하여 ‘World Friends Korea’를 해외봉사 브랜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 사업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도 크다.

다섯째, ODA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이러한 ODA사업에 파생하여 요구되는 교육문화 수요가 있다. 이러한 부문에는 ODA, 즉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인력을 교육훈련하는 것과 한국 ODA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과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한국어 관련 교육수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자료로 대학 등 국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과 학생 수(수강생)와 ODA 교육원의 교육과정과 수강생 수를 들 수 있다. 아울러 ODA 관련 연구 논문이 증가하는 것도 교육문화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ODA와 관련하여 교육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수원국 등 개도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와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자료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자격 응시자의 증가와 외국인 등의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의 큰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응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ODA 공여국으로서 수원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수원국에서 의사소통과 문화교류 등을 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어 교원의 증가현상이다. 한국어 교육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외국인 등의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의 증가다. 이러한 교육문화 수요는 한국어 교육관련 교사, 교재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회문화부문 지수 구성안을 표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문화부문 지수 구성

지수	내용	관련데이터
국가브랜드지수	ODA 공여국으로서 국가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GfK-Anholt NBI 순위
정책컨설팅지수	수원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전수 및 역량개발지원	KSP, DEEP 사업수 모듈화 사업수
초청연수지수	정책컨설팅 및 역량개발을 위한 수원국 인사 방한 초청교육 연수사업	초청연수자수, ODA 유학생수
해외봉사지수	ODA 차원 장단기 해외 봉사활동	WFK 해외봉사자수, 민간지원 해외봉사지수
교육문화영향지수	ODA 관련 대학 교육 및 연구 활동, 수원국의 한국어 수요 및 비영리 단체 참여활동 등	국제개발협력과정 수와 학생수, ODA 관련 논문수,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자수, NGO 참여활동

자료 : 저자가 작성.

라. ODA의 국내 파급효과의 전체 효과

ODA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경제 및 사회문화를 포함한 전체 효과는 아래와 같이 경제파급효과(TEE:Total Economic Effect)와 사회문화파급효과(TSE:Total Social and Cultural Effect)를 합한 효과로 파악하고, 경제파급효과와 사회문화파급효과가 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여 종합틀을 만들었다.

이때, 왜 가중치가 50 대 50이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ODA 자체가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원조이므로 그 원조는 기본적으로 ODA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둘째로 국내에도 경제 및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주면 좋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파급효과나 사회문화파급효과나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다름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중요한 종속변수들인 소비, 수출, 투자를 각각 같은 비중으로 그 변화 지수를 파악하고, 사회문화파급효과 지수는 국가브랜드 지수, 정책컨설팅 지수, 초청연수 지수, 해외봉사 지수, 교육문화영향 지수를 같은 비중으로 그 변화 지수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종합지수를 통해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전체 분석틀을 만들어 보았다.

○ ODA의 국내파급=경제파급효과(TEE)+사회문화파급효과(TSE)
(100점) (50점) (50점)

○ 경제적 파급효과 지수: EE1 - EE3, $TEE = \sum_{i=1}^3 (EEi)$
EE1 - EE3 란 각각, consumption, export, investment. 각 33.3점

○ 사회문화파급효과 지수: SE1 - SE5, $TSE = \sum_{i=1}^5 (SEi)$
SE1 - SE5 란 각각, 국가브랜드 지수, 정책컨설팅 지수, 초청연수 지수, 해외봉사 지수, 교육문화영향 지수를 말함. 각각 20점

○ 경제 및 사회문화파급효과를 매 3년 단위로 측정
- 파급효과가 매년 달라지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

3. 기타 보조적 분석들

가. 정성분석

ODA의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사회문화적 부문에 대한 정성적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IV장에서 정성적 분석을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어 상론한다.

나. ODA의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ODA의 승수효과)

● ODA의 GDP에의 승수효과

- Macro Economics에서 국민소득의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E(총지출)=AS(총공급)

AE= C+I+G+Xn

AS= Y

AS = AE에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므로,

Y = C+I+G+Xn ----- (1)

여기서 C=a+b(Y-T)----- (2)

C : 소비,

T : 조세,

I : 투자

G : 정부지출

Xn: 순수출

a : 절편

b : 한계소비성향

Y : 국민소득 (GDP)

식 (1)에 식 (2)를 대입하면,

$$Y = a + b(Y-T) + I + G + X_n$$

Y를 원편으로 모으면,

$$(1-b)Y = a + bT + I + G + X_n \text{ ----- (3)}$$

이때, others = a + bT + I + G + X_n 라고 하면

$$\text{균형국민소득은 } Y = \text{others}/(1-b) \text{ ----- (4)}$$

이때, 만약 정부지출을 ΔG 만큼 늘리면, 그것으로 인한 국민소득 증대효과
는 식 (3) 오른편에 ΔG 가 덧붙여지는 것이므로,

$$(1-b)Y = a + bT + I + G + X_n + \Delta G$$

$$(1-b)Y = \text{others} + \Delta G \text{ ----- (5)}$$

$$Y = \text{others}/(1-b) + \Delta G/(1-b) \text{ ----- (6)}$$

식 (4)와 식 (6)의 차이는 기존의 Y에 ΔY 가 생겼는데,

$\Delta Y = \Delta G/(1-b)$ 이다.

-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국민경제에서 ODA에 일어나는 ΔG 를 계산하면,
국민소득 ($Y = \text{GDP}$) 에 미치는 영향 ΔY 를 구할 수 있다.
- ODA에 의해 일어나는 ΔG 를 계산하면, ODA 중 한국 내에서 소비된 상품과 서비스 구매액 비중을 a_1 이라 하면
 $\Delta G = a_1 \cdot \text{ODA}$ 가 된다.
- 따라서 $\Delta Y = \Delta G/(1-b) = (a_1/(1-b)) \cdot \text{ODA}$ 로 계산 가능

- 가정 : 1) ODA로 인해 한국 내 임금 지급은 아주 미미하여 0으로 계산
2) ODA로 인한 추가 국내 수입은 없음.
3) ODA로 인해 G(정부지출)의 감소가 없음.

● ODA의 고용에의 효과

- GDP 증가액이 결정되면, 고용의 GDP 탄력성에서 고용량이 계산된다.
(고용의 GDP에 대한 탄력성은 통계청에서 매년 계산됨)

IV.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결과: 분석틀을 이용한 결과

1. 경제파급효과: 베트남 사례분석

가. 데이터

<표 2> 데이터 거시경제변수 및 ODA액수

{단위: US\$ million(oda), 10억 원, %}

년	export	int	cpi	gdp	oda_Vn	oda_others	consump-tion	cap	sav	inv
89		15.2	5.7	163518	0.03	5.08	20,128.6	123389.6	39.1	37.1
90		16.5	8.6	197712	0.04	12.21	24,050.1	141538.1	39.3	39.5
91		18.9	9.3	238877	0.12	31.5	29,017.0	164508.7	39.3	41.4
92	68228	16.2	6.2	273267	0.44	44.83	33,523.3	172346.0	38.4	38.5
93	72682	12.6	4.8	310074	1.11	59.08	38,168.9	183730.2	38.4	37.5
94	85090	12.9	6.3	366054	2.37	57.74	45,535.1	257517.7	38.1	38.6
95	109997	13.8	4.5	428927	3.39	68.07	53,426.4	296654.7	38.1	39.2
96	115602	11.9	4.9	481141	7.26	116.06	61,158.3	334219.1	36.4	39.9
97	121812	13.4	4.4	530347	6.75	104.6	67,724.0	387542.4	36.4	37.6
98	117751	15.1	7.5	524477	11.62	113.06	64,257.5	309897.7	38.0	27.9
99	125160	8.9	0.8	576873	7.17	124.17	73,335.3	264491.4	35.9	31.2
00	150795	9.4	2.3	635185	16.03	115.12	82,991.2	265359.4	34.4	33.2
01	131032	7.1	4.1	688165	38.13	133.4	91,323.2	352674.2	32.4	31.9
02	140545	6.6	2.8	761939	22.61	184.12	101,789.1	449557.5	31.8	31.2
03	165341	5.4	3.5	810915	12.68	232.47	104,427.3	263288.1	33.3	32.3
04	213792	4.7	3.6	876033	31.35	299.48	107,523.0	295175.2	35.5	32.3
05	235924	4.7	2.8	919797	15.29	448.06	114,261.0	430541.8	33.8	32.5
06	270906	5.2	2.2	966055	10.08	366	120,711.4	702586.4	32.9	33.0
07	305487	5.7	2.5	1043258	24.67	465.87	128,789.9	754580.4	33.2	32.8
08	355899	7.0	4.7	1104492	53.22	485.99	137,161.7	415887.1	32.9	33.0
09	310532	5.8	2.8	1151708	57.53	523.57	141,313.4	422567.3	32.9	28.6
10	400605	4.7	3.0	1265308	96.04	804.57	150,846.2	463406.6	35.0	32.1
11	476012	4.4	4.0	1332681	139.49	850.03	161,634.2	556753.9	34.6	32.9
12	465977	3.8	2.2	1377457	200.32	982.85	166,985.4	588423.3	34.2	30.8
13	476848	3.2	1.3	1429445	234.56	1075.02	170,944.7	542109.6	34.3	29.0
14	491386	3.0	1.3	1485078			176,007.2		34.7	29.0

주: CAP(자본유입)은 2003년부터 1993년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of United Nations)기준

int: 이자율, cpi: 소비자물가상승률, cap: 자본형성액, sav: 저축률, inv: 투자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연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OECD/statistics/DAC 2015 데이터.

나. 경제파급효과: 베트남 사례분석 결과¹⁰⁾

1) 베트남에 대한 ODA 증가의 국내소비(Consumption)에의 영향

Model: Roy and Vadlamudi (1993) 사용

$$\ln(\text{CON})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INT} + d \cdot \text{PRI} + e \cdot \ln_{\text{ODA_VN}} + f \cdot \ln_{\text{ODA_others}} + \text{error} \text{-----} \quad (1)$$

$$\ln(\text{CON})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INT} + d \cdot \text{PRI} + e \cdot \ln_{\text{ODA_VN}} + f \cdot \ln_{\text{ODA_VN_1}} + g \cdot \ln_{\text{ODA_others}} + h \cdot \ln_{\text{ODA_others_1}} + \text{error} \text{-----} \quad (2)$$

이때, CON은 소비(consumption) , ln(CON)은 CON의 자연대수 값
 INT는 interest rate
 PRI 는 price level (물가상승률)
 lnODA_VN 은 베트남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 값
 lnODA_others 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 값
 lnODA_VN_1, ln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래그(lag) 항

<표 3> 종속변수 : ln_Consumption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10.25659	17.88	<.0001
gdp	-1.95E-08	-0.04	0.9662
int	-0.02621	-1.87	0.0795
cpi	-0.01238	-0.64	0.5318
ln_oda_Vn	0.1083	3.19	0.0057
ln_oda_others	0.21016	1.36	0.1932
R²	0.9713		

10) 베트남에의 한국의 ODA는 1989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베트남에의 ODA를 통한 한국의 국내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는 2013년까지의 데이터만 현재 사용이 가능하 실제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는 24개에 불과하고 래그(lag) 항 까지 고려한다면 22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표본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계량적 분석에서 독립변수의 숫자를 많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석의 한계로 작용한다.

<표 4> 종속변수 : ln_Consumption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10.54127	18.48	<.0001
gdp	-1.09E-07	-0.24	0.8135
int	-0.04541	-2.7	0.0172
cpi	0.00238	0.12	0.9055
ln_oda_Vn	0.08008	2.1	0.0548
ln_oda_vn_1	0.02388	1.05	0.3107
ln_oda_others	0.11127	0.71	0.4869
ln_oda_oth_1	0.07301	0.9	0.3815
R ²	0.9777		

모델 1을 편미분하면, e 의 경우, 결국 ODA_VN의 Consumption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한다. 즉 ODA_VN 1% 증가가 Consumption 몇 %를 증가시키는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e = \frac{d \cdot (\ln con)}{d \cdot \ln_oda_vn} = \frac{\frac{d \cdot con}{con}}{\frac{d \cdot oda_vn}{oda_vn}} = \frac{\frac{\Delta con}{con}}{\frac{\Delta oda_vn}{oda_vn}}$$

모델 1에서는 log(ODA_VN)의 소비(Consumption)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도가 0.0057로서 아주 유의미하게 한국의 소비를 0.1083 만큼 증가시키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즉, ODA_VN의 1% 증가가 한국의 국내소비를 아주 유의미하게 0.1083%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 2에서도 log(ODA_VN)의 소비(Consumption)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도가 0.0548서 신뢰도 5% 가까이 유의미하게 한국의 소비를 0.080 만큼 증가시키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한편, Roy, K and Y. Vadlamudi (1993)¹¹⁾의 경우와 비교하면, ODA가 호주의 국내소비에 계수값 0.52% 만큼 영향이 있지만 유의도는 0.8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그 결과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나타난다.

11) 호주의 ODA가 국내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2) 베트남에 대한 ODA 증가의 한국 수출(Export)에의 영향

Model: Vogler-Ludwig et al. (1999)¹²⁾ 사용

$$\ln(\text{export}) = a + b \cdot \ln_GDP + c \cdot \ln_oda_vn + d \cdot \ln_oda_others + \text{error} \quad \text{-----} \quad (3)$$

$$\ln(\text{export}) = a + b \cdot \ln_GDP + c \cdot \ln_oda_vn + d \cdot \ln_oda_vn_1 + e \cdot \ln_oda_vn_2 + f \cdot \ln_oda_others + g \cdot \ln_oda_others_1 + h \cdot \ln_oda_others_2 + \text{error} \quad \text{-----} \quad (4)$$

이때, export 는 한국의 수출액

GDP는 국내총생산, ln_GDP 는 GDP의 자연대수값

ln_ODA_VN 은 베트남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others 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값

ln_ODA_VN_1, ln_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래그(lag) 항

ln_ODA_VN_2, lnVODA_others_2 은 각각 2년 후 래그(lag) 항

<표 5> 종속변수 : ln_Export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6.24207	1.86	0.0793
ln_gdp	0.23919	0.81	0.4271
ln_oda_vn	0.0074	0.16	0.8725
ln_oda_others	0.48845	4.21	0.0005
R ²	0.9721		

<표 6> 종속변수 : ln_Export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4.79056	1.59	0.1348
ln_gdp	0.34806	1.34	0.2028
ln_oda_vn	0.00527	0.11	0.9123
ln_oda_vn_1	0.03936	1.53	0.1472
ln_oda_vn_2	-0.05696	-2.28	0.0386
ln_oda_others	0.2777	2.06	0.0582
ln_oda_oth_1	0.12452	1.66	0.12
ln_oda_oth_2	0.07416	0.97	0.35
R ²	0.9856		

12) 독일의 ODA가 독일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모델 (3)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GDP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ODA의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대한 액수가 한국의 수출에는 유의도 0.0005에서 탄력성이 0.488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 때 계수의 값은 ODA 액수 증가율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탄력성을 의미한다.

모델 (4)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증가율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에 당해년도 유의도 0.058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그 탄력성은 당해연도의 ODA에서 0.277로 나타난다.

한편 베트남에 대한 ODA 액수의 증가율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탄력성은 2년후 유의도 0.038로 5%의 신뢰도내에서 유의미하게 마이너스(-) 0.056으로 크지는 않지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베트남에의 ODA 증가율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가) 베트남에 대한 ODA 증가의 베트남으로 수출 (Export) 영향

Model: Vogler-Ludwig et al.(1999) 사용

$$\ln(vn_export) = a + b \cdot \ln_GDP + c \cdot \ln_oda_vn + d \cdot \ln_oda_others + error \quad \text{----- (3-1)}$$

$$\begin{aligned} \ln(vn_export) = a + b \cdot \ln_GDP \\ + c \cdot \ln_oda_vn + d \cdot \ln_oda_vn_1 + e \cdot \ln_oda_vn_2 \\ + f \cdot \ln_oda_others + g \cdot \ln_oda_others_1 \\ + h \cdot \ln_oda_others_2 + error \quad \text{----- (4-1)} \end{aligned}$$

- 이때, export 는 한국의 베트남에의 수출액
- GDP는 베트남의 국내총생산, ln_GDP 는 GDP의 자연대수 값
- ln_ODA_VN 은 베트남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 값
- ln_ODA_others 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의 자연대수 값
- ln_ODA_VN_1, ln_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래그(lag) 항
- ln_ODA_VN_2, lnVODA_others_2 은 각각 2년 후 래그(lag) 항

<표 7> 종속변수 : ln_vn_Export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10.78868	1.75	0.0966
ln_gdp	-0.65285	-1.21	0.2422
ln_oda_vn	0.23067	2.76	0.0128
ln_oda_others	0.99244	4.67	0.0002
R ²	0.9661		

<표 8> 종속변수 : ln_vn_Export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11.70087	1.76	0.1006
ln_gdp	-0.72736	-1.27	0.2261
ln_oda_vn	0.18426	1.78	0.0975
ln_oda_vn_1	0.10122	1.79	0.0953
ln_oda_vn_2	-0.03708	-0.67	0.5114
ln_oda_others	0.96535	3.25	0.0058
ln_oda_oth_1	-0.02212	-0.13	0.8958
ln_oda_oth_2	0.04969	0.29	0.7733
R ²	0.9747		

모델 (3-1)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베트남에의 한국의 수출은 한국의 GDP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ODA의 베트남에 대한 액수가 한국의 베트남에의 수출에는 유의도 0.012에서 탄력성이 0.2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 때의 계수의 값은 모델 3과 4에서의 경우와 같이 ODA 액수 증가율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는 탄력성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4-1)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베트남에 대한 ODA 액수의 증가율이 한국의 베트남에의 수출증가율에 당해년차, 1년 후까지 모두 10%의 신뢰도내에서 유의미하게 각각 0.18, 0.10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한편, 이 결과를 Vogler-Ludwig 외 2인 (1999)의 연구결과에서 독일의 ODA가 그 ODA 수여국에 대한 수출에의 영향과 비교해 보면, 0.208 - 1.155 로 나타나 한국의 베트남에의 경우보다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¹³⁾

13) Vogler-Ludwig 외 2인 (1999) pp 96-97, Table 5. Mauritius (0.208), Bangladesh (1.155)

3) 베트남에 대한 ODA 증가의 한국의 투자(Investment)¹⁴⁾에의 영향

Model: Roy and Vadlamudi (1993) 사용

$$\text{Inv}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sav} + d \cdot \text{int} + e \cdot \text{CAP} + f \cdot \text{oda_vn} + g \cdot \text{oda_others} + \text{error} \text{ ----- (5)}$$

$$\text{Inv} = a + b \cdot \text{GDP} + c \cdot \text{sav} + d \cdot \text{int} + e \cdot \text{CAP} + f \cdot \text{oda_vn} + g \cdot \text{oda_others} + f \cdot \text{oda_vn_1} + g \cdot \text{oda_others_1} + \text{error} \text{ ----- (6)}$$

이때, Inv 는 한국의 투자율
 GDP는 국내총생산,
 sav 는 한국의 저축률
 int 는 한국의 이자율
 CAP 는 한국에서의 자본유입액
 ODA_VN 은 베트남에의 ODA 액수
 ODA_others 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 대한 ODA 액수
 ODA_VN_1, ODA_others_1 은 각각 1년 후 래그(lag) 항

<표 9> 종속변수 : Investment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3.96822	4.39	0.0005
gdp	-6.64E-07	-1.92	0.0746
sav	-0.00363	-0.15	0.8792
int	-0.00305	-0.24	0.8123
cap	1.27E-07	0.65	0.528
oda_Vn	-0.00094	-1.04	0.3126
oda_others	0.000633	1.42	0.1771
R²	0.5500		

14) 투자란, 기업의 소비수요를 말하며, 국민소득 결정의 하나의 결정변수이다.

<표 10> 종속변수 : Investment

변수	계수	t 값	유의도
상수항	4.85993	4.96	0.0003
gdp	-1.1E-06	-2.69	0.0186
sav	-0.02169	-0.9	0.386
int	-0.0074	-0.61	0.5552
cap	3.22E-08	0.16	0.8773
oda_Vn	0.000796	0.55	0.5892
oda_vn_1	-0.00321	-1.87	0.084
oda_others	0.000796	1.78	0.0988
oda_oth_1	0.000368	0.98	0.3466
R ²	0.6494		

모델 (5)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GDP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ODA의 나머지 변수들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모델 (6)은 모델 (5)에 ODA의 베트남과 그 외 국가에 대한 액수의 래그(LAG) 항인데, 베트남에의 ODA액수는 1년 후 한국의 투자증가에 0.084의 유의수준에서 0.32% 감소하게 하는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위의 결과는 Roy, K and Y. Vadlamudi (1993) 연구에서 호주의 ODA 1단위(U\$1million) 증가가 호주의 투자 증가에 1% 증가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Roy, K and Y. Vadlamudi (1993) 연구와 달리 ODA를 베트남과 그 외로 나누었다는 점과, 래그(LAG) 항을 첨가하여 1년 후의 결과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15) 종속변수 자체가 투자율이므로 % 증가로 나타남.

다. ODA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와 종합지수

㉠ 경제파급효과의 지수 기준:

- 1) 계수 값의 % 증가율 자체를 각 EE의 지표로 삼음.
- 2) 하지만, 그 계수 값의 t 값이 유의해야 (유의수준 10%)
- 3) 만약,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이 유의에서 비유의로 기준을 벗어나면
- 100%
- 4) 만약,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이 비유의에서 유의로 변경되면
+100%

그런 효과를 지난 6년간 (2007, 2010, 2013) 으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TEC를 계산하면,

$$TEE_{2010} = 0.33*(4.3\%) + 0.33*(+100\%) + 0.33*(+21.7\%) = +42.0\%$$

$$TEE_{2013} = 0.33*(-21.3\%) + 0.33*(-0.6\%) + 0.33*(-102.4\%) = -41.4\%$$

<표 11> EE의 3년간 변화율

	2007	2010	2013
EE1, 모델 2, logoda_vn, 계수	0.09757	0.10181	0.08008
유의도	0.0036*	0.0167*	0.0548*
EE1 지수 증가율		4.3%	-21.3%
EE2, 모델 4 logoda_vn_2, 계수	0.04307	-0.05660	-0.05696
유의도	0.1888	0.0480*	0.0386*
EE2 지수 증가율		+100%	-0.6%
EE3, 모델 6, oda_vn_1, 계수	0.10600	0.12903	-0.00321
유의도	0.0645*	0.0265*	0.0840*
EE3 지수 증가율		+21.7%	-102.4%

주 : * 계수가 유의한 값을 나타냄.

2.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

가. ODA사업의 사회문화 파급효과 지수별 변화

1) 국가브랜드 지수

ODA 파급효과를 가장 광범위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브랜드 효과로 볼 수 있다.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지위와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ODA 공여국은 수원국 국민으로부터 감사와 호감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의 위상과 지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수원국에서 개발효과가 있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간 뿐 아니라 인프라 시설 완공 후 운영 시에도 공여국의 국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줄 수 있다. ODA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형성되고 돈독해지며 장기적으로 교류협력 관계가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ODA를 제공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에 대한 감사와 호감의 이미지는 공여국가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국가브랜드의 가치는 마케팅의 확대개념으로 경제적 성과와 기업의 자산과 매출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국민, 정부, 수출, 관광, 문화유산 등 그 나라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가브랜드는 기업의 마케팅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정치, 경제, 기술 등 하드 파워보다는 문화, 관광, 국민, 공공외교 등 소프트 파워 중심의 이미지 효과를 부각하는 측면이 크다.

ODA는 국가브랜드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 강성진 외(2012)의 연구에서 국가브랜드 가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이들 요소의 상호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ODA 등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가 국가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ODA가 국가브랜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

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나라가 ODA를 시작하게 되면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ODA가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김유경·이호복(2010)의 연구는 ODA를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 확대는 국가 브랜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ODA의 수원국 국민의 인식은 한국 국가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국가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국가브랜드 개념은 국가도 기업이나 제품처럼 브랜드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최근 높은 관심과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호복, 2009; 김유경 외, 2010 재인용).

이러한 국가브랜드를 개념화하고 지수화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GfK 국가브랜드(Anholt-GfK Roper Nation Brands Index)¹⁶⁾ 지수이다. GfK 국가브랜드 지수는 한국을 포함하여 50개국의 국력과 선호도, 국가이미지를 측정하는 수출, 거버넌스, 문화, 국민, 관광, 이민과 투자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브랜드 순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Anholt-GfK 국가브랜드 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6) 영국의 사이먼 안홀트가 개발하고, 시장 조사기관 GfK가 1~2년 주기로 조사 발표하는 국가브랜드 지수로 50개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한다.

<표 12> GfK 국가브랜드 구성요소

요인(자산)	측정
관광(Tourism)	여행을 하고 싶은 관심과 매력에 대한 인식
수출(Export)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자가 찾는 정도와 특정 국가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정부 또는 지배구조 (Governance)	해당 국가의 정부의 역량과 공정성, 정부 신뢰성 그리고 민주주의, 정의, 환경 등 헌신에 대한 인식
투자과 이민 (Investments & immigration)	이주하여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싶은 매력과 해당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
문화와 유산 (Culutre and Heritage)	영화, 음악, 예술, 스포츠, 문학 등 문화와 유산에 대한 인식
국민, 사람(People)	능력, 교육정도, 개방성, 친절함 등과 잠재적인 배타의식과 차별에 대한 인식

자료 : Anholt-GfK Roper Nation Brands Index(<http://www.gfk.com/>)

<표 13> 한국의 GfK-Anholt Nation Brands Index(GfK-NBI) 추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32	33	31	30	27	28	27	27

자료 : Anholt-GfK Roper Nation Brands Index.

한국의 Aanholt-GfK 국가브랜드 순위를 보면 2007년 32위에서 2008년 33위 그리고 2009년 31위, 2010년 30위로 2011년 이후에는 27위권으로 상승하였다(표 13 참조).

이러한 국가브랜드 순위 상승은 2009년 OECD DAC 가입결정¹⁷⁾과 이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자 증가 등 ODA 규모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봉사단 등 ‘World Friends Korea(WFK)’를 브랜딩하여 정책적 강조를 한 것이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국가브랜드 가치는 국가이미지의 총체적· 상징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17) 공식적으로는 2010년 1월1일부터 가입되었다.

로서 앞의 두 연구에서 밝혔듯이, ODA의 확대와 그 효과가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컨설팅 지수

우리나라 ODA사업의 특색 중 하나가 정책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원조를 받았던 개발도상국에서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가로서 수원국에서 롤 모델(Role Model)로 삼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수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경제발전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서 그 시초는 1982년 KDI가 개도국의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국제개발교류협력 프로그램(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에 그 기원이 있다(KSP, 2015). 이것이 2004년 수원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해 주는 경제발전공유사업(KSP)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KSP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수원국인 개발도상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그 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을 지원하는 지식집약적 협력사업이다.

이러한 정책자문 사업은 수원국의 정책수요에 따라 거시적 정책컨설팅에서 경제발전전략 수립, 세부분야별 정책대안 제시, 수원국의 역량강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 기간에 따라 단년도 일반지원과 3년 단위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포괄적인 정책컨설팅을 제공한다.

<표 14> 정책컨설팅 지수

(단위: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경제발전 공유사업 (KSP)	주제	11	10	10	22	28	55	79	106	139	144	129	733
	국가	2	2	4	5	8	11	15	33	33	35	33	44
모듈화 연구	사업							20	39	42	16	19	136
	주제							4	8	8	5	7	-
DEEP 개발조사 사업	사업	13	15	18	24	21	20	16	21	25	38	56	267
	국가	12	14	14	15	15	12	10	14	16	22	27	-
합계		24	25	28	46	49	75	115	166	206	198	204	1,136

자료 : 기획재정부 · KDI(2015), 『KSP 10년사』, KOICA 통계 (2015).

<표 14>의 KSP사업 실적을 보면,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 KSP를 하였으나 2009년에는 11개국 55개 주제사업 그리고 2011년에는 33개국 106개 주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KSP 사업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그 분야도 다양하게 증가되었고, 민간기관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자문 외주위탁 사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KDI, 2015). 다음의 표 15에서 보듯이 민간 위탁사업이 2011년 17개 사업, 2012년 21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으로 확대되어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증가하며 국내 정책컨설팅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연구보고서는 2010년 20편의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인적자원, 국토건설, 보건의료, 농어업 환경 등 8개 분야로 확장되어 2014년까지 총 136편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러한 모듈화 연구보고서는 KSP 홈페이지(www.ksp.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표 14 참조).

<표 15> 정책자문 외주위탁사업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KDI 담당	8	9	12	17	
민간 담당	7	17	21	18	
민간 비중	46.67%	65.38%	63.64%	51.43%	

자료 : 기획재정부 · KDI(2015), 『KSP 10년사』, p.52. 저자가 재작성.

<표 16>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주제별 보고서

	경제 일반	행정 ICT	산업 에너지	인적 자원	농업	국토 건설	환경	보건	합계
2010	6	2	7	5	-	-	-	-	20
2011	4	8	9	7	2	5	2	3	40
2012	15	3	5	5	5	5	2	2	41
2013	3	3		3	3	3		3	18
2014	3	6	1	1	2		2	2	19

자료 : 기획재정부 · KDI(2015), 『KSP 10년사』, p.67.

개발경험 공유 파트너십(DEEP) 중 개발조사 사업은 수원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는 정책자문과 개발조사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조사 사업은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내 파급효과가 크다. DEEP 사업 중 이러한 개발조사 사업의 실적을 보면, 2005년 14개국 15개 사업에서 2007년 24개 사업으로, 2013년에는 38개, 2014년에는 56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발조사 사업의 확대에 따라 국내의 기술협력관계 전문가와 컨설팅 사업이 확대되고 발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17> KOICA 개발조사 사업의 규모

(단위: 백만 원)

연도	국가 수	사업 수(신규)	사업비
2005	14	15(5)	6,723
2006	14	18(7)	6,696
2007	15	24(16)	7,611
2008	15	21(2)	12,679
2009	12	20(9)	8,435
2010	10	16(7)	15,198
2011	14	21(12)	12,127
2012	16	25(11)	17,922
2013	22	38(18)	30,457
2014	27	56(25)	42,710

자료 : KOICA 통계실적(2015).

이러한 기술개발협력의 확대에 따라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과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KOICA와 협력하여 ODA사업을 하는 사업 수와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표 17 참조).

3) 초청연수 지수

ODA 초청연수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협력국에 전수함으로써 역량개발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개발과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즉 수원국의 역량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들을 공여국인 한국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초청연수는 기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연수는 연수 기간 3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과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 경험과 노하우 전수, 전문기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초청유학생은 석사과정 등 1년 이상이 필요한 전문과정으로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무학습 그리고 공여국인 한국의 문화, 제도 등에 대한 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표 18> KOICA 초청연수 실적

(단위: 명, 건수, 백만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546	2,810	3,325	4,104	3,538	4,242	4,347	4,699	4,929	5,031
단기연수	2,546	2,810	3,215	3,947	3,367	4,022	4,066	4,415	4,628	4,674
유학생	-	-	110	157	171	220	281	284	301	357
대상국가수	108	89	104	106	97	115	112	110	110	118
참여기관수	90	97	108	123	115	115	134	139	149	144
과정 수	165	189	239	290	244	263	278	293	310	299
예산	12,291	15,249	20,141	25,250	19,887	29,475	31,684	35,349	35,110	55,124

자료 : <http://stat.koica.go.kr>

위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수사업의 과정 수와 연수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수생 개인의 지식과 능력 향상뿐 아니라 국내의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산업에 파급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수원국의 정부관계자 및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초청연수는 수원국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뿐 아니라 국내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연수 경험을 통하여 국제관계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국제전문인력의 양성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및 다양한 정책 사례를 전수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 친한 인재를 배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언어, 음식, 생활, 문화, 개발 경험, 정책의 정도와 공공영역 관리에 대한 이수 전후의 이해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한국에 대한 종합적 이해도, 한국의 이미지, 교육 이수 후 국가에 대한 이미지 향상 면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이는 초청 연수자 등이 공여국인 한국에 체류하면서 학업뿐 아니라 한국 언어, 음식, 생활, 문화 등에 대한 체험과 이해가 증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ODA 효과를 인식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표 19> 국가이미지 제고 기여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4.32	4.32	4.43	4.47
전년 대비 증감			0.11 (+)	0.04 (+)

자료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 연수 종료보고서”.

초청연수 분야는 국제개발협력 취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정책 지식과 노하우, 교육, 문화, 보건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화 업무의 발전과 교류 관련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국제화 교육 기회,

교육서비스 산업, 인프라 지원 시설과 산업 등의 발전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ODA 초청 연수사업에 참여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연수사업 학생 도우미인 청소년들이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생들이 ODA사업과 초청연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에 관심과 진출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4) 해외봉사 지수

ODA와 관련하여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호응하는 분야의 하나가 해외봉사다. 이는 젊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빈곤 퇴치 등 인류애적 가치를 가지고 국제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세계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표 20> 해외봉사자 실적

연도	민간(단기)	WF 단기	WF장기	합계
2005	0	2,079	1043	3,122
2006	10	2,537	1172	3,719
2007	76	2,065	1314	3,455
2008	1238	3,073	1457	5,768
2009	1185	3,583	1499	6,267
2010	1445	3,034	1648	6,127
2011	1285	2,949	1708	5,942
2012	1357	2,504	1808	5,669
2013	1419	2,727	1963	6,109
2014	1,330	3,013	1577	5,920

자료 : KOICA, WFK 웹사이트 자료 종합 저자가 작성.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이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우리나라가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던 해외봉사활동을 ‘World Friends Korea’라는 브랜드로 통합하여 ODA 해외봉사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표 20>에서 보듯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봉사 규모가 3천 명에서 6천 명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WFK의 증가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지원하는 해외봉사단이 파악된 것만도 매년 1천 명 이상이 된

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0년을 계기로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해외봉사단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표 21>의 KOICA 해외봉사단의 선발 및 지원 경쟁률을 보면, 전체 지원자 중 1/3 수준이고 그 경쟁률도 5대 1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산 지원 등이 확대되면 해외봉사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 ODA를 통한 해외봉사의 수요가 크고, 그만큼 국내 대학생들에 대한 파급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 KOICA 일반봉사단 경쟁률 및 선발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수요대비 선발 비율	33.11%	32.22%	28.75%
경쟁률	5.99	5.75	4.42

자료 : KOICA 내부 자료.

또한, 이렇게 WFK를 통한 해외봉사자 등이 기업 또는 국제협력, 국제기구, NGO 등 국제관련 활동 분야에 취업 등을 통해 진출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해외봉사를 통한 연쇄 파급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표 22>이다.

<표 22> WFK 출신 취업 현황

	합계	민간 기업	공공 기관	NGO	국제 협력	국제 기구	대사 관	대학/ 교사	보진/ 의료	기타
국내	239	97	29	19	7	3	1	53	19	4
국외	115	27	2	1	42	5	12	6	3	-
합계	354	124	31	20	49	8	13	59	22	4

자료 : KOICA(2014a), 『WFK 한눈에 보는 통계』, p.40. <http://stat.koica.go.kr>

ODA사업으로서 젊은 청년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 23>의 WFK 봉사자 현황을 보면, 대학생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과 태평양아시아협의회(PAS, Pacific Asia Society)가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봉사자가 매년 2천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해외봉사 등 봉사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NGO 단체들의 활동은 우리나라에 해외봉사활동이 정착되고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 해외봉사단은 그 준비와 현장활동 및 사후관리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에게 경험과 입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한 자발적 협력과 공유 활동 등이 on/off line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23> WFK 파견 봉사자 실적

과건 년도	KOICA 봉사단				증장기 자문단 6개월 ~1년	퇴직 전문가 1년	과학기술 지원단 1년	IT 봉사단 1~3 개월	청년봉사단		태권도 봉사단	합계
	일반 단원	협력 요원	협력 의사	NGO 봉사단					대사협	PA S		
90	44											44
91	37											37
92	52											52
93	51											51
94	59											59
95	78	20	8									106
96	93	30	8									131
97	90	39	9						131	212		481
98	64	39	5						76	85		269
99	70	28	5						150	255		508
00	74	34	8						182	481		779
01	134	37	10					175	173	465		994
02	139	60	8					206	235	668		1,316
03	120	80	8					345	824	637		2,014
04	610	79	8	32				300	1,197	627		2,853
05	593	80	10	40				320	1,495	584		3,122
06	684	80	10	77			17	304	1,733	804		3,709
07	655	98	19	192			27	323	1,472	593		3,379
08	708	99	15	166			27	442	2,609	405	59	4,530
09	732	100	19	149			18	481	2,963	474	146	5,082
10	673	100	24	203	42	38	20	548	2,241	480	313	4,682
11	683	84	16	198	44	50	21	612	2,443	233	273	4,657
12	694	100	19	249	84	76	36	550	2,053	207	244	4,312
13	796	32	14	321	97	111	40	552	2,172	291	264	4,690
14	985			321	123	105	43	552	1,995	265	201	4,590

자료 : KOICA(2014), 『WFK 한눈에 보는 통계』.

민간단체의 해외봉사활동도 매년 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방식

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음 <표 24>는 이러한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지원하는 해외봉사활동의 주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뿐 아니라 해외봉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컨설팅 서비스 기관 및 NGO의 역할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에의 참여를 계기로 젊은 대학생들이 첫째, 봉사활동을 통해 개도국 등 해외현장 체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형 인재로, 둘째, 전공과 연계하여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봉사활동의 강화, 셋째, 이러한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의 진흥 및 활동계획 수립 등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된다.

<표 24> 민간단체 파견봉사단 수

연도	현대 해피무브	G마켓 해외봉사단	새마을 세계화재단	LS 해외 봉사단	인천국제 공항공사	KB국민은행 라온아띠	합 계
2005							
2006		10					10
2007		20	56				76
2008	1,029	102	57			50	1,238
2009	1,000	85	55			45	1,185
2010	999	300	86			60	1,445
2011	880	200	87	58		60	1,285
2012	940	200	90	47	20	60	1,357
2013	1,000	200	95	44	20	60	1,419
2014	1,000	200		50	20	60	1,330

자료 : 인터넷 발표 자료 등을 취합하여 저자가 작성.

5) 교육문화영향 지수

우리나라의 ODA가 확대됨에 따라 ODA 관련 전문가 등 이 분야의 활동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 국민들 특히 장래활동 전망 및 진로를 염두에 둔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ODA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와 여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OICA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은 ODA 교육원을 개설하고 또한 대학 등을 지원하여 ODA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 등 이다.

2010년 KOICA는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ODA 교육원을 개원하였다. 그 중 한 사업인 이해증진 사업은 빈곤, 보건, 교육, 거버넌스, 환경, 인권, 평화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하여 대학교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및 대내외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KOICA, 2014c).

<표 25>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참여대학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학 강의 수	17	30	34	39	43	30
강의 누적 수	17	47	81	120	163	193
수강생 수	1,607	2,318	2,956	3,976	5,516	3,331
누적 수강생 수	1,607	3,925	6,881	10,857	16,373	19,704

자료 : KOICA(2015).

이해증진 사업은 연간 10억 원 규모로, 매년 사업 선정 대학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학부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17개 대학이 참여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매년 30여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2014년까지 총 193개 대학의 사업단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대학 참여규모는 중복 참여한 대학을 제외하고 약 70개 대학에서 참여한 것이다. 이해증진 사업의 도입 초기에는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증진이 주 목적이었으나, 점차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분야별·지역별·이슈별 연구역량 강화로 사업의 목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내용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외에 해외현장학습 지원 등이 추가되었다(KOICA, 2014c).

<표 26> 이해증진 사업 사업 참여대학 수 및 사업 예산 규모 변화

(단위:백 만원)

연도	대학(개)	수강생	사업 예산
2009	17	1,607	327
2010	30	2,318	1,012
2011	34	2,956	874
2012	39	3,976	1,152
2013	43	5,516	1,312
2014	30	3,331	900

자료 : KOICA(2015).

EDCF 차원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ODA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로 EDCF 대학생 캠프, 서포터즈, 국제개발 경시대회, 청년 인턴 해외파견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EDCF 내부문서, 2015).

<표 27> 국제개발 이해증진 사업 참여대학

구분	대학 (사업)수	수행대학
2009	17	강원대, 대전대, 동서대, 배재대, 숙명여대, 순천대, 연세대, 예수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동대, 한성대
2010	29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예수대, 위덕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성대, 한양대
2011	33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국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 위덕대, 을지대, 인하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한기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라대, 한성대, 한양대
2012	37	가천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한경대, 한기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2013	43	가야대, 가천대,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안산대, 연세대, 영남대, 예수대, 우석대, 위덕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외국어대, 한라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항공대
2014	30	가천대, 강릉원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나사렛대, 대구대, 명지대, 백석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자간호대, 숙명여대, 안산대, 연세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비전대, 제주한라대, 조선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폴리텍대, 항공대, 한양대
합계	189	

우리나라의 ODA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에 ODA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보여주는 현상이 ODA 관련 논문의 증가다.

<표 28>에서 보듯이, 2000년대 초에는 관련 논문이 별로 없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대학에서 학위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학술지에 ODA 논문 게재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ODA 관련 연구의 증가는 관련 전문가의 활동과 교육연구 분야의 ODA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표 28> 연도별 ODA 관련 논문/학술 게재

연도	학위논문		학술지	합계
	박사	석사		
2001		3	1	4
2002		2	1	3
2003		5	7	12
2004		1	6	7
2005		4	11	15
2006		7	25	32
2007		9	29	38
2008	1	11	35	47
2009	2	26	21	49
2010	2	28	64	94
2011		29	79	108
2012	5	43	84	132
2013	2	42	86	130
2014	4	46	91	141
합계	16	256	540	812

베트남 ODA사업 현장방문 시 현지인 등과 의사소통을 하며 ODA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공여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과 수원국인 현지인들이 발전국가인 한국에 대해 선망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한류 등의 영향과 함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한국어 교습을 하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어 교원자격증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습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 29>에서 보듯이, 2006년 초기에는 합격자 수가 868, 2009년에는 1,037명이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응시자 2,248명 합격자 215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9> 한국어 교원자격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응시자수	1,754	790	910	1,090	2,248	1,921	2,491	3,378	4,834
합격자수	868	639	842	1,037	2,157	1,810	2,337	3,139	4,566
합격률(%)	49.49	80.89	92.53	95.14	95.95	94.22	93.82	92.92	94.46

자료 : 국립국어원(2015).

한국어 교육수요와 관련하여 고무적인 현상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외국인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표 30>을 보면, 1997년 1회에는 2,692명이 응시하였으나 2003년 12,019명에서 2008년 이후부터는 10만 명을 넘어서고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중 많은 응시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기 위해 그 자격조건의 일환으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ODA 공여국으로서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였고, 음악,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이들 국가에서 인기가 있어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수요는 교사의 증가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교재, 교육기자재, 시설 등의 활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표 30>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응시자 수	2,692	3,227	3,926	5,976	7,475	8,788	12,019	17,311	26,378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회차	10회	11~12회	13~14회	15~16회	17~20회	21~24회	25~28회	29~32회	33~37회
응시자 수	33,803	82,774	159,472	188,914	169,157	121,550	151,166	167,853	208,448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2015).

ODA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발원조 민관협력 사업이다.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 사업은 민간 자원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ODA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KOICA, 2015).

수익창출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CSR) 차원에서 인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외개발원조기관뿐 아니라 NGO 및 시민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0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초기단계로서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며, UN 등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 등 글로벌 CSR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KOICA의 글로벌 CSR 사업 현황을 보면 <표 31>와 같다. 이러한 사업의 증가와 참여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증가하는 것이 ODA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통한 참여의 증가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1> KOICA 글로벌 CSR사업 규모 및 민간참여 현황

연도	단위 사업 수	참여 파트너 수	총사업비규모 (백만원)	KOICA 지원금(백만원)	민간자체부담 (백만원)
2010	5	7	2,473	1,184	1,289
2011	10	15	4,762	2,203	2,558
2012	12	17	5,632	2,810	2,821
2013	19	25	9,141	4,582	4,643
2014	31	27	11,173	6,021	5,031

자료 : KOICA(2015), 『글로벌 CSR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ODA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파급효과와 영향을 주는 교육문화영향 지수는 앞에서 언급한 ODA 관련 대학 교과과정 수강생 증가, ODA 관련 논문 발표 등 연구활동 증가, 수원국 등에서 한국어 학습수요 증가에 따른 한국어 능력 응시자 수와 한국어 교원자격시험 응시자 증가와 ODA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교육문화영향은 200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분야와 관련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우리나라가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ODA 관련 사업과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아래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그 관련자 수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2> 교육문화영향 지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ODA 교과과정 수강생수	-	-	-	1,607	2,318	2,956	3,976	5,516	3,331
논문수	32	38	47	49	94	108	132	130	141
한국어교원 자격시험 합격자수	868	639	842	1,037	2,157	1,810	2,337	3,139	4,566
CSR 사업수					5	10	12	19	31
합계	900	677	889	2,693	4,574	4,884	6,457	8,804	8,069

자료 : KOICA(2015), 국제교육원(2015), 국립국어원(2015)을 재구성하여 작성.

나. ODA사업의 사회문화 파급효과 분석결과와 종합지수¹⁸⁾

<표 33> 사회문화부문의 파급효과

구분	연도	2007		2010		2013	
		지수값	변화율	지수값	변화율	지수값	변화율
국가브랜드지수		32위		30위	11%	27위	15%
정책컨설팅지수		46 건		115	150%	198	72%
초청연수지수		3,325 명		4,022	21%	4,628	15%
해외봉사지수		3,455 명		6,127	77%	6,109	0%
교육문화영향지수		677 건/명		4,574	576%	8,804	92%

자료 : 관련지수별 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가 작성.

18)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는 베트남 개발 수원국으로부터 파급되는 효과나 영향부문은 정책컨설팅, 개발기초조사 사업과 초청연수자 등 제한적이고 지수 값도 미미하여 ODA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참고 베트남관련 해외봉사, 초청연수 등 실적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봉사단	114	150	132	158	127	136	305	228	600
개발조사·KSP	2	1	1		6	9	3	5	9
연수생 초청	143	166	168	214	186	177	185	210	249

위의 표에서의 지수의 변화를 반영하여 TSE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SE_{2010} &= 0.2*(11.0\%) + 0.2*(150.0\%) + 0.2*(21.0\%) \\ &\quad + 0.2*(77.0\%) + 0.2*(576.0\%) = 167.0\% \\ TSE_{2013} &= 0.2*(15.0\%) + 0.2*(72.0\%) + 0.2*(15.0\%) + 0.2*(0.0\%) \\ &\quad + 0.2*(92.0\%) = 38.8\% \end{aligned}$$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 지수 값은 앞의 <표 1>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제시한 관련 데이터의 값으로 정했다. 관련 데이터는 지수의 내용을 반영하는 현황과 실적 등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고, 관련 데이터가 다수일 경우 합산하였다.

즉, 국가브랜드 지수는 GfK-Anholt 국가브랜드 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상승 변화를 측정하였고, 정책컨설팅 지수는 그 내용을 구성하는 KSP사업의 주체수, 모듈화 연구사업 수와 DEEP의 개발 기초조사연구 사업 수를 합산하였다. 초청연수 지수와 해외봉사 지수는 관련 인원수를 파악하여 합산하였다. 이때 3개월 기준으로 단기연수자, 장기연수자 단기해외봉사자, 장기해외봉사자로 구분하였으며, 장단기 간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교육문화 영향지수는 ODA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수와 관련 연구논문 수와 비영리단체의 참여사업 수를 동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지수 값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 추이를 보면, 국가브랜드 지수, 정책컨설팅 지수, 초청연수 지수, 해외봉사 지수와 교육문화영향 지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2007년에 비해 2010년도에 167%의 큰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ODA 예산과 사업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은 2010년에 비해 38.8%가 증가하였다.

지수별 변화율을 보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청연수 지수, 해외봉사 지수, 교육문화영향 지수가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교육문화영향 지수와 정책컨설팅 지수는 2009년에 국제개발협력 교과과정 지원 등이, 2010년에 KSP 모듈화 사업 등이 각각 신설되고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에 대폭적인 증가를 보인 것이다.

해외봉사 지수의 경우 2007~2010년 기간 동안에 큰 증가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관련 분야 예산 규모가 현상유지 수준인 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외봉사 공모사업의 경우 수요 대비 선발 비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지원 예산이 증가하면 그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그 과급효과와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3.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 종합결과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지난 6년간(2007, 2010, 2013) 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파급효과인 TEE는 앞의 제1절에서 아래와 같이 결과가 보고되었다.

$$\begin{aligned} TEE_{2010} &= 0.33*(4.3\%) + 0.33*(+100\%) + 0.33*(+21.7\%) = + 42.0\% \\ TEE_{2013} &= 0.33*(-21.3\%) + 0.33*(-0.6\%) + 0.33*(-102.4\%) = - 41.4\% \end{aligned}$$

한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인 TSE는 앞의 제2절에서 아래와 같이 결과가 보고되었다.

$$\begin{aligned} TSE_{2010} &= 0.2*(11.0\%) + 0.2*(150.0\%) + 0.2*(21.0\%) \\ &\quad + 0.2*(77.0\%) + 0.2*(576.0\%) = 167.0\% \\ TSE_{2013} &= 0.2*(15.0\%) + 0.2*(72.0\%) + 0.2*(15.0\%) + 0.2*(0.0\%) \\ &\quad + 0.2*(92.0\%) = 38.8\% \end{aligned}$$

따라서 ODA의 국내 파급 종합지수 = 경제파급효과(TEC) + 사회·문화 파급효과(TSF)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begin{aligned} Total\ Effect_{2010} &= 0.5*TEE_{2010} + 0.5*TSE_{2010} \\ &= 0.5*(42.0\%) + 0.5*(167.0\%) = 104.5\% \\ Total\ Effect_{2013} &= 0.5*TEE_{2013} + 0.5*TSE_{2013} \\ &= 0.5*(-41.4\%) + 0.5*(38.8\%) = -2.6\% \end{aligned}$$

종합분석 결과를 보면, 2010~2013년 기간 동안 ODA의 국내 파급효과 종합지수는 -2.6%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경제파급효과(TEE₂₀₁₃)가 -41.4%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제파급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주요 이유는 대베트남 ODA의 투자(Investment)에의 효과를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가 2010~2013년 기간 동안 -102.4%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국내 경기가 그동안 2~3%대의 경제성장률¹⁹⁾을 보여 국내 경기부

1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이다.

진의 영향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가져왔고, 성장산업들의 경우에도 세계경기가 중국, 유럽 등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는 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V. ODA의 국내과급효과: 기타 보조적 분석들에 의한 결과

1. OD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

첫째, ODA를 통해 공여국²⁰⁾의 기업들이 수원국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게 되어 당해 국가에서의 공여국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게 된다.

ODA를 통해 공여국의 ODA 수원국에 대한 개발지원은 자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수원국에서의 공여국기업들의 베트남의 사회·문화, 특히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공여국기업의 당해 수원국 진출에서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례연구 : 독일의 중국 난징에 대한 ODA에서의 경험²¹⁾

난징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법적인 필요가 생겨서 중국 관계자를 괴팅겐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이수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도가 중국에서 적용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회계 및 경영에서의 독일기업의 중국 진출을 결과적으로 돕게 만들었다.

둘째, ODA 수원국에서의 공여국 상품, 기술,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한다. 특히 직업훈련과 자격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그 효과는 크다.

공여국 상품, 기술 및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당해 수원국에서의 인적자본이 발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당해 수원국의 기술발달과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양국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KOICA 연구에서는 이를 불러 ODA를 통한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디딤돌 효과로 명명하여 지적하고 있다.²²⁾ EDCF에서도 이러한 효과에 대한

20) ODA 공여국입장에서 ODA 경제적 과급효과 정성분석을 통해 일반화한 후 한국에 적용되는 부분만 특화하여 사례분석 연구를 제시하여 보완함.

21) 독일 사례연구는 Vogler-Ludwig, Schonher, Taube and Blau(1999),

『Die Auswirkungen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auf der Wirtschaftsstandort DeuTSFhland』, Munchen: Weltforum Verlag.의 제3장과 제4장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

연구가 나와 있다²³⁾.

사례연구 : 한국의 경우

KOICA 연구에서 ODA사업의 국내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디딤돌 효과의 사례 및 EDCF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Case 1: KOICA 사업으로 우리 기업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후 수원국 발주 유사사업 수주 경우(사례; 탄자니아 CUPIA, 몽골 SK C&C, KT NET 등)
- ② Case 2: KOICA 개발컨설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컨설팅 후속 조치로 Action Plan에 따라 진행되는 본 사업 용역 수주(사례; 케냐 유신 엔지니어링 등)
- ③ Case 3: KOICA 사업 후 수원국에서 동 사업 관련 추가발주 사업 또는 타 공여국의 유사사업 수주(사례; 스리랑카 대보, 나이지리아 삼부이 엔씨 등).
- ④ Case 4: EDCF의 몽골 지능형 교통망(ITS) 구축사업 컨설팅에 참가한 A 중소기업은 노하우를 축적한 후, ADB 발주 몽골 울란바토르 대중교통시스템 현대화사업 컨설팅 사업을 수주함
- ⑤ Case 5: EDCF의 베트남 닥농성 의료기자재 공급사업에 참여한 후, B 중소기업은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4개 병원사업을 수행함

사례연구 : 독일

독일의 중국에의 철도개발에 대한 ODA에서, 중국 철도기술자를 독일의 대학에 유학을 오게 해서 직업훈련시킴으로써 중국인들이 독일의 기술과 혁신적 사업을 하는 사고를 배우게 되고 독일을 친근한 파트너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키우게 되었다.

다음 <표 34>는 독일이 다른 ODA 공여국보다도 더 강하게 ODA 수원국에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도 프랑스나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ODA 공여국에서의 ODA 수원국에의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자 수는 일본이 가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35 참조).

22) KOICA(2015), “ODA 아국 기여효과” (내부 자료) 첨부자료 1 KOICA 무상원조 “우리경제 기여효과”, p.4.

23) EDCF 연차보고서 2014. p38, 42 2013. p43 및 한국의 개발협력 2012 pp75-78 참조

이 과정에서 독일에 ODA 수원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이 몇 년간 거주하게 됨으로써 독일 상품과 사회제도에 익숙해지게 되어 독일 기업의 ODA 수원국에의 진출이 수월해지게 된다.

<표 34> ODA 수원국 관계자의 ODA 공여국에서의 직업훈련 개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3
Germany	19.646	20.743	38.414	12.846	16.387	21.194
France	14.191	15.806	18.718	14.220	18.411	
Great Britain	12.056	15.507	14.779	12.144	7.580	6.737
Japan	3.675	6.700	9.342	15.114	39.737	49.745
USA	18.272	14.146	6.854	13.790		

자료 : Vogler(1999), p.169, table 16.

<표 35> ODA 공여국의 ODA 수원국에의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자 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2/3
Germany	6.344	6.847	5.850	5.514	7.017	6.921
France	38.122	32.327	23.136	15.877	11.526	N.A. ²⁴⁾
Great Britain	17.354	11.747	7.614	5.544	2.880	3.336
Japan	2.629	4.211	8.215	12.721	18.805	19.182
USA	22.417	12.119	11.447	19.887	N.A	N.A

자료 : Vogler (1999), p.169, table 17.

셋째, ODA를 통한 공여국의 중소기업²⁵⁾들에 대한 ODA 수원국에서의 시장개방효과를 가져온다. ODA 수원국에서의 ODA사업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여국기업들의 당해 수원국에서의 기업들의 시장조사와 여타 애로사

24) NA: Not Available

25) 2014년도 EDCF 자체평가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차관사업 평가' 보고서 p 7에서는 중 '연도별 EDCF 본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 참여 건수(165건)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9월 당시 대기업(226건) 대비 73% 수준임.

향을 파악하게 되어 당해 수원국으로의 상품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게 된다. 특히 해외시장 확보에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일인데, ODA를 통해 공여국의 중소기업제품의 시장개방 효과가 크게 된다.

KOICA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정성적 효과를 거론하고 있다. ODA의 플랫폼 효과라 명명하고 있다²⁶⁾. KOICA 자료에 의하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우리기업 및 기관 730개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79% 수주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참여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 NGO, 학교 등과의 약정방식의 협력사업 약 539개의 추진 실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EDCF 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원국 시장개방효과에서 EDCF 사업 참여 중소기업현황 및 EDCF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소개를 통해 수원국 시장개방효과에 일조하고 있다²⁷⁾.

사례연구 : 한국 사례 (2011~2014년)

- ① 조달참여실적: KOICA 무상원조 국내조달 총 730개사, 수주액 약 8,100억 원, 이 중 중소 및 중견기업이 79%의 수주를 달성
- ② Development Action Plan의 신규 추진: 기업 등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ODA사업으로 공동 기획하는 플랫폼 기간 ODA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116억 원)하여 창의적 가치를 창출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ODA를 통한 해외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함.
- ③ 차관조건 우대, 소액차관, 민간협력차관 등: EDCF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존재

사례연구 : 독일 사례

독일이 ODA loan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16개 업체를 지원한 사례는 결국 키르기스스탄과 같이 독일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진입에 배타적인 지역에서의 ODA의 간접적 효과를 크게 본 사례이다. 이 사례 중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중소기업에의 기술, 자본,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26) KOICA(2015), "ODA 아국 기여효과" (내부 자료) 첨부자료 1 KOICA 무상원조 "우리경제 기여효과", pp.2~3.

27) EDCF 자체평가(2014)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차관사업 평가' 보고서 및 EDCF 홈페이지 참조)

넷째, ODA 사업참여를 바탕으로, 이후 공여국기업들의 현지 공장 설립과 ODA 수원국 기업들에 대한 자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해외에서의 공여국 기업의 국내로의 이전소득 상승효과를 가지게 된다.

공여국기업의 기술 노하우, 제품 등에 대한 Presentation 기회를 주어 공여국기업의 ODA 수원국에서의 현지 공장 설립이나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지원이 가능해져서 결과적으로 공여국기업들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커지게 됨으로써 GDP 상승에 도움을 주게 된다.

사례연구: 독일의 이집트 농업 관개기술과 비료공장 설립 및 지원하는 ODA를 통해 이집트의 농경작을 높이고 현지 기능인들의 농업 및 토목기술도 높였지만, 결국 독일의 토목기술과 농업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집트의 경제성장에 따르는 후속적인 자체 사업들에서의 협력기업들로 계약을 맺게 되어 그 이익이 독일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다시 말해, ODA 지원이 ODA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도움을 주고 결국 승수효과를 통해 독일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ODA는 공여국의 품질, 안전, 환경 표준에 ODA 수원국에서의 표준시스템 설립에 다양한 채널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 제품이 계속적으로 ODA 수원국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여섯째, 공여국제품의 ODA 수원국에서의 사용 기회가 ODA로부터 주어짐으로 인해 공여국제품의 ODA 수원국 시장 테스트를 겸하게 되어 결국 문체점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그 해결을 통해 공여국제품에 대한 현지의 'good will' 이 증가되고 결국 공여국제품을 현지에서 선호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2. ODA의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정성분석

앞의 제IV장에서 ODA 사회문화적 국내 파급효과를 지수별로 그 추세와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정성분석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함의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ODA를 통한 국가브랜드 효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 향상으로 공공외교 역량이 확충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평판과 신뢰는 공공외교의 소프트 파워로서 역할을 한다.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매년 4천여 명의 WFK와 민간지원 해외봉사자들이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요한 공공외교 활동가들이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린 외교활동은 해외봉사자에 대한 자긍심과 글로벌 시민의식의 고취를 통한 공공외교 역량의 확충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둘째, ODA를 통한 정책컨설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 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컨설팅은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국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다.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제도 형성, 기관 형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 역량개발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컨설팅은 경제개발뿐 아니라, 보건, 환경, 교육, 문화 및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분야, 행정기관, 연구소 및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가 다양하므로 나라별 지역 전문가의 수요가 있다.

이러한 ODA 사업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국제화와 국제적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현재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ODA 관련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책컨설팅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는 공공기관 및 정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되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인력수요도 확대되어 정책컨설팅 산업이 발전한다. 이러한 정책 컨설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과 새로운 참여자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전문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현재 KSP 등 정책컨설팅에 대학 등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정책컨설팅 산업의 발전은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인적자원 및 관리역량의 향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확대되고 있는 ODA의 규모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ODA 사업 수요의 개발과 관련 연관 분야의 노하우와 관리역량의 전문화를 통해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 또한, 정책컨설팅을 통해 교류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협력의 분야가 심화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ODA는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국제활동의 기회와 진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ODA를 통한 해외봉사활동의 지원은 대학생들이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체험하며, 이해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글로벌 시민의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젊은 세대들이 ODA 해외봉사활동 경험과 역량을 개발하여 ODA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ODA에 관해 관심을 갖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는 진로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ODA 관련 교육에 KOICA 등 해당 기관뿐 아니라 대학 등에서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습의 역량개발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젊은 세대의 취업확대와 국제전문가 양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국내 ODA 전문가 교육의 발전과 관련 교육 인프라 확충은 ODA 관련 초청연수와 유학생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ODA 관련 산학협력 체계가 형성되고 ODA 교육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ODA 교육 인프라의 발전은 ODA 컨설팅 산업과 연계하여 ODA 관련 인력의 역량향상과 인적자원 관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 증가하고 있는 장년층 은퇴자들을 ODA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수원국에 진출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요조사와 ODA사업의 디자인 및 실행을 통해 ODA사업의 확충과 장년 세대에 대한 해외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ODA사업의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집행관리, 인력 및 지식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가 선순환적으로 연결하는 ODA 관련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것이 자생적으로 확대재생산 기능을 확대해 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ODA의 국내 GDP 및 고용효과 분석결과: 베트남 사례

베트남에의 ODA의 한국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된 비중을 계산하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원조(KOICA)와 유상원조(EDCF)인가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진다. 무상원조는 ODA의 국내총생산에의 승수 (α_1) 가 0.136으로 계산되고, 유상원조는 0.383로 계산된다. 한계소비성향은 <표 37>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ODA의 GDP에 대한 효과는 <표 38>에서와 같이 2005년의 154.8억원에서 2013년에는 1625.5억원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ODA의 고용효과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나오는 GDP와 고용자 수에 의거하여 <표 39>와 같이 계산된다. 고용효과는 2005년의 113명에서 2013년의 1,87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6> 베트남에의 한국의 ODA 유·무상 액수 및 GDP에 대한 효과

(단위: 백만달러)

연도	ODA액수	무상원조		유상원조		ODA 한국재화 사용액	한계소비성향	GDP효과
		액수	액수* 0.136	액수	액수* 0.383			
2005	15.29	12.25	1.67	6.43	2.46	4.13	0.68	12.90
2006	10.08	11.9	1.62	1.82	0.70	2.32	0.65	6.62
2007	24.67	26.36	3.58	2.05	0.79	4.37	0.47	8.25
2008	53.22	13.14	1.79	45.47	17.42	19.20	0.52	40.00
2009	57.53	22.39	3.05	39.83	15.25	18.30	0.35	28.15
2010	96.04	32.45	4.41	68.75	26.33	30.74	0.36	48.04
2011	139.49	30.08	4.09	116.37	44.57	48.66	0.64	135.17
2012	200.32	33.89	4.61	173.7	66.53	71.14	0.63	192.26
2013	234.56	35.95	4.89	206.51	79.09	83.98	0.38	135.46

자료 :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연도

<표 37> 한국의 한계소비성향

연도	C (민간소비지출)	GDP (10억 원)	C 증가	GDP 증가	b (한계소비성향)
2004	450281.0	876033.1			
2005	480134.2	919797.3	29853.2	43764.2	0.68
2006	510076.8	966054.6	29942.6	46257.3	0.65
2007	546667.1	1043257.8	36590.3	77203.2	0.47
2008	578753.9	1104492.2	32086.8	61234.4	0.52
2009	595432.9	1151707.8	16679.0	47215.6	0.35
2010	636449.9	1265308.0	41017.0	113600.2	0.36
2011	679667.3	1332681.0	43217.4	67373	0.64
2012	708012.7	1377456.7	28345.4	44775.7	0.63
2013	727587.7	1429445.4	19575.0	51988.7	0.38
2014	748479.3	1485078.0	20891.6	55632.6	0.38

자료 : 한국은행(2015), 경제통계시스템(ECOS).

<표 38> ODA의 고용효과 (2005~2013)

연도	GDP효과 (milU\$)	GDP효과 (10억 원)	탄력성	GDP (10억 원)	고용자 수	고용효과 (명)
2004				876033.1	14818754	
2005	12.90	15.48	0.444	919797.3	15147471	113
2006	6.62	7.94	0.3785	966054.6	15435766	48
2007	8.25	9.89	0.4117	1043257.8	15943674	62
2008	40.00	48.01	0.3682	1104492.2	16288280	261
2009	28.15	33.78	0.7608	1151707.8	16818015	375
2010	48.04	57.65	0.4997	1265308	17647028	402
2011	135.17	162.20	0.4748	1332681	18093190	1046
2012	192.26	230.71	0.7833	1377456.7	18569355	2436
2013	135.46	162.55	0.862	1429445.4	19173474	1879

자료 :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연도.

<표 39> 고용의 GDP에 대한 탄력성 (2005~2013)

연도	GDP (10억 원)	증가율	고용자 수 (명)	증가율	탄력성
2004	876033.1		14818754		
2005	919797.3	0.0500	15147471	0.0222	0.4440
2006	966054.6	0.0503	15435766	0.0190	0.3785
2007	1043257.8	0.0799	15943674	0.0329	0.4117
2008	1104492.2	0.0587	16288280	0.0216	0.3682
2009	1151707.8	0.0427	16818015	0.0325	0.7608
2010	1265308.0	0.0986	17647028	0.0493	0.4997
2011	1332681.0	0.0532	18093190	0.0253	0.4748
2012	1377456.7	0.0336	18569355	0.0263	0.7833
2013	1429445.4	0.0377	19173474	0.0325	0.8620

자료 : OECD, Statistic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각 연도.

KOICA와 EDCF의 2005~2013년 동안 ODA 액수 중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액을 사업의 성격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한 각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계산에 사용된 대표적 사업들에 대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 계산은 <표 40>과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0> EDCF 사업에서의 한국산 사용액(예상치)*

(단위: 백만불, %)

승인 연도	업종	사업명**	승인액	한국산 사용액 (예상치)	%
2009	교량	빈틴교량 건설사업	100	23.4	23.4
2010	교량	밤콩교량 건설사업	200	87.5	43.8
2012	고속도로	로메-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200	60.7	30.4
2009	병원	까마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2.96	2.0	67.6
2011	병원	다낭병원 핵의학 방사선센터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10	6.0	60.0
2011	하수	퐁수엔시 하수처리사업	46	18.1	39.3
2014	상수도	짜빈 상수도 건설사업	25.79	8.9	34.5
2011	전산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100	52.0	52.0
2014	태양광	꽁민성 태양광 발전사업	12	8.5	70.8
합계			696.8	267.1	38.3

주 : * 한국산 용역(인건비 등) 및 재화(기자재 등), 한국 컨설턴트 고용 비용 등.

** 업종별 대표되는 사업만 추출

자료 : EDCF 내부 자료

<표 41> KOICA의 1991~2013년간 대베트남 ODA사업 프로젝트 현황

(단위: 만달러, %)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 지원규모)	집행액	유형	한국기자재 사용액	%
2007	베트남 정부 전자조달 파일럿시스템 구축사업 (‘07-’09/ 224.24만불)	224.24	전자정부	82.2	36.6
2008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 1차 (‘08-’12/ 271.69만불)	271.69	법원	15.1	5.5
2010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10-’14/ 1,000만불 중 875만불 지원)	875	직훈	33.1	3.7
2011	베트남 꽁찌성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11-’13/ 447.30만불)	447.30	직훈	7.3	1.6
2011	베트남 경쟁행정 관리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1-’14/ 150만불 중 126만불 지원)	126	전자정부	43.9	34.8
2013	베트남 폐기물 재활용 기술연구 역량강화사업 (‘13-’15/ 150만불 중 24만불 지원)	24	폐기물	3.7	15.4
2013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13-’15/ 350만불 중 110만불 지원)	110	전자정부	99.4	90.3
2013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개발 역량강화사업 (‘13-’14/ 340만불 중 57만불 지원)	57	직훈	5.4	9.4
	합계	2135.2	290.1		13.6

주: ** 업종별 대표되는 사업만 추출

자료 : KOICA 내부 자료.

VI.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아직 계량화되지 못한 ODA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국내 파급효과를 종합적 관점에서 계량화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화 방법론은 다른 나라에서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모델을 원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ODA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처음으로 계량화를 시도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 측면에서도 파악해 봄으로써 국내 파급효과의 전반적 효과를 골고루 짚어보는 점에서 본 연구가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내 파급효과의 전체 분석틀만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ODA 액수의 20%를 차지하는 베트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모델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모델의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나누어 종합적인 파급효과를 지수화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전체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ODA의 국내소비, 수출, 투자에의 영향을 살펴보며, 선행 연구에서의 타 ODA 공여국의 효과와도 비교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은 간단하지만 학술지에 발표된 검증된 방법론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다.

ODA의 국내소비에 대한 영향 분석은 Roy and Vadlamudi (1993), ODA의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Vogler-Ludwig et al.(1999), 그리고 ODA의 국내투자에의 영향 분석은 Roy and Vadlamudi (1993)의 모형을 사용한다.

사회문화부문의 파급효과는 경제부문에서 주로 다루는 소득,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경제 변수의 효과를 제외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영향을 평가한다. 사회문화부문의 효과와 영향은 인과관계가 복잡적이고 효과에 대한 인식과 선호를 내포하고 표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 파급효과 지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국가브랜드 지수, 정책컨설팅 지수, 초청연수 지수, 해외봉사 지수, 교육문화 지수 등이다.

한국의 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해 주는 정책 지식과 경험 전수를 위한 지식공유 사업(KSP), 수원국의 공무원과 전문가 초청연수가 특징적이다. 이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ODA 준비계획단계에 요구되는 지역 전문가, ODA 계획 수립 및 사업 진행 전문가, 초청연수 시설, 강사, 교재, 국내 수용능력, 각 분야 사업 전문가 및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등 고급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에 부수하여 ODA 체험 및 학교, 청년층에 대한 교육 실시에 따른 효과로 교육과정 증가, 교육참여자, 해외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발전, 대학의 교과과정 등을 ODA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 ODA사업으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효과도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이므로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지수를 사회문화 파급 지수로 선정하였다.

베트남에 대한 ODA의 국내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는 ODA의 국내소비, 수출 및 투자에 대한 효과는 일정 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외국의 타 공여국과의 비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스위스 및 독일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효과의 규모는 한국이 스위스와 독일에 비해 약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부문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국가브랜드 지수, 정책컨설팅 지수, 초청연수 지수, 해외봉사 지수와 교육문화영향 지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2007년에 비해 2010년도에 167%의 큰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ODA 예산과 사업의 증

가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은 2010년에 비해 38.8% 증가하였다.

국내 파급 종합지수는 경제파급효과(TEE)와 사회문화 파급효과(TSE)를 가중치를 같이 주어 합산한 것인데, 2007~2010년 3년간의 종합지수는 10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2013년 3년간의 종합지수는 -2.6%로 미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DA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비중을 전체 ODA액수에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ODA의 국내소비 증가가 한국의 국내 GDP 및 고용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완적 연구로서 분석해 본 결과, ODA의 GDP에 대한 효과는 2005년의 154.8억원에서 2013년에는 1625.5억원으로 상승하였다. 고용효과는 2005년의 113명에서 2013년의 1,87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계량적 분석이 아닌 정성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첫째, ODA를 통해 공여국기업들이 수원국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게 되어 당해 국가에의 공여국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게 된다.

둘째, ODA 수원국에서의 공여국상품, 기술,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한다. 특히 직업훈련과 자격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그 효과는 크다.

셋째, ODA를 통한 공여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ODA 수원국에서의 시장 개방 효과를 가진다.

넷째, ODA를 통해 공여국기업들의 현지 공장 설립과 ODA 수원국 기업들에 대한 자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해외에서의 공여국기업의 국내로의 이전소득 상승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섯째, ODA는 공여국의 품질, 안전, 환경 표준에 ODA 수원국에서의 표준시스템 설립에 다양한 채널에 대하여 기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제품이 계속적으로 ODA 수원국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여섯째, 공여국제품의 ODA 수원국에서의 사용 기회가 ODA로부터 주어짐으로 인해 공여국제품의 ODA 수원국 시장 테스트를 겸하게 되어 결국 문제

점 해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그 해결을 통해 공여국제품에 대한 현지의 'good will' 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공여국제품을 현지에서 선호하게 되는 기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사례로서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ODA 수원국에서의 공여국 상품, 기술,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한다는 점을 KOICA 연구에서는 이를 ODA를 통한 한국 기업 및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디딤돌 효과로 명명하여 지적하고 있다.

① KOICA 사업으로 우리 기업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후 수원국 발주 유사사업수주 경우의 사례로서, 탄자니아 CUIA, 몽골 SK C&C, KT NET 등을 들고 있고,

② KOICA 개발컨설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컨설팅 후속조치로 Action Plan에 따라 진행되는 본 사업 용역 수주 사례로서, 케냐의 유신지니어링 사례를 들고,

③ KOICA 사업 후 수원국에서 동 사업 관련 추가발주 사업 또는 타 공여국의 유사사업 수주 사례로서 스리랑카 대보, 나이지리아 삼부이엔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ODA의 국내 중소기업에의 시장개방 효과를 KOICA 연구에서는 이를 ODA의 플랫폼 효과라 명명하고 있다. KOICA 자료에 의하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우리 기업 및 기관 730개가 입찰에 참여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이 79% 수주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참여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기업, NGO, 학교 등과의 약정방식 약 539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ODA의 국내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의 정성분석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국가브랜드 효과는 선린 외교활동을 통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공외교 역량의 확충과 한국관광 및 상품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정책컨설팅을 통한 국내 기관 및 전문가의 국제화 역량의 강화와 수원국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의 심화 발전의 계기가 된다.

셋째, ODA사업을 통한 정책컨설팅의 확대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적인 수요로 확대되어 전문컨설팅 산업이 발전한다.

넷째, 이러한 정책컨설팅과 컨설팅 산업의 발전은 ODA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의 계기가 된다.

다섯째, ODA사업은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게 국제활동의 기회와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의 장이 된다.

여섯째, ODA 관련 대학 등과 산학협력 및 교육 인프라의 발전은 ODA 관련 전문가 양성과 관련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의미와 한계

본 연구는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에 대한 ODA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의 ODA 집행에 과거와 비교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적인 부분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계량화된 그리고 정성적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사연구를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2010년 기간에는 42.0%, 2010-2013년 기간에는 -41.4%를 보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등락이 상당하고 파급효과가 일반적 예상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ODA액수의 증가보다는 거시경제적 변동성의 영향이나 축적된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 상당한 만큼 ODA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의 해석에는 일부 긍정적 효과만으로 계량적인 ODA의 경제 파급효과를 강하게 단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ODA 자체가 한국의 경제적 효과 증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ODA 사업의 수행 시 국제 규범의 준수 등을 고려할 때 ODA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만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OECD DAC에서의 권고 등에서는 ODA 집행시 공여국의 상품, 자재 및 서비스 사용의 구속성이 작아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ODA의 경제적 국내파급효과는 향후 더 작아질 가능성

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교해 볼 때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계속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합한 종합효과는 2007~2010년 3년간의 종합지수는 104.5% 상승, 2010~2013년 3년간의 종합지수는 -2.6%로 미미하게 감소한 것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한국의 ODA는 나쁘지 않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ODA는 ODA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인류 공영의 측면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ODA 공여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위상 제고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및 상품들의 해외 디딤돌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즉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무상원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ODA의 원래 목적은 인류공영의 측면에서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공여국이 기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ODA를 통한 공여국인 한국의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ODA 자체가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계량 및 비계량적 방법론을 확립하고, 분석을 실제 실시함에 의의가 있고 파이어니어적 역할로서 의미로서의 가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또한, ODA를 통한 국내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적 시사점 발굴에 중점을 둘 일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ODA 사업 분야와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좌우되며, 이것은 복합적이고 비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DA 지원을 받았던 수원국에서 이제는 ODA 공여국으로 발전한 성공 사례로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ODA 공여국의 위상과 품격을 나타내는 인도적 차원의 사업과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해 주는 정책컨설팅 사업 등은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와 신뢰를

연는 공공외교의 역량이 강화된다.

이러한 ODA에 관한 인식과 이해도가 증진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과 글로벌 시민의식이 함양되면 ODA 사업에 대한 지지와 참여가 확대된다. ODA 사업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D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나라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해외봉사와 정책컨설팅 사업이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해외봉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 시민사회단체, NGO,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외봉사활동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ODA 교육과 해외봉사자 교육 준비단계에서부터 진행과 사후관리 그리고 해외봉사자들의 취업과 진로발전 등을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ODA 봉사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와 동기부여를 주는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과 기업에서 이러한 활동 경력에 대한 인정과 가점이 주어진다면 확대재생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ODA 관련 정책컨설팅과 교류협력은 우리나라의 국제화 역량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의 양성과 컨설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 관련 기관의 국제화 역량강화와 이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교육훈련을 하게 되면 국제무대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된다. 국제화 역량과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면 국제개발협력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된다.

한편, ODA의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의 보론으로서 거시경제 분석에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계측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ODA 자체가 일정 부분 국내 상품과 서비스를 집행함에 사용하므로 그 비율을 찾아내어 ODA의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론과 그 실증분석 결과도 앞으로의 ODA의 국내총생산(GDP)과 고용효과 산출의 연도별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의 하나로 제시된 것도 일정 부분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ODA의 국내 파급효과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분석에서 보다 엄밀한 의미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분석이라기보다는 전체 거시경제적 대략의 위치와 효과를 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사실, ODA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는 만큼, 무상이든 유상 ODA이든 간에 이미 지급된 ODA 액수에 대해 공여국으로서 수원국 측에 데이터나 업무의 수행방법을 간여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ODA의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할 자료와 데이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스위스와 같이 ODA의 자금집행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상당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ODA의 국내 파급효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발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ODA의 무상이든 유상이든, ODA의 수원국에서 집행 시 한국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된 것에 대한 정확한 액수들이 집계될 경우 보다 정확한 ODA의 국내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진 외 (2012), “공적개발원조(ODA)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제통상 연구』, 제71권 제2호, pp. 51~71.
- 권 울 (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KIEP.
- 기획재정부 (2015), 『KSP 10년사』, 한국개발연구원(KDI).
- 김유경 외 (2010), “공적개발원조가 국가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연구”, 『광고학연구』, 제21권 제2호.
- 김은미 외 (2010),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KOICA.
- 박예린 (2014), “한중일 대외원조정책 비교분석”, KOICA 개발과 이슈 제21호.
- 손혁상 외 (2015), “글로벌 CSR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KOICA.
- 오종진 (2010), “터키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과 기여외교”, 한국중동학회.
- 윤수재 (2013), 『ODA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태주 (2003),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 와 발전담론”, 『비교문화연구』, 제9집 제1호.
- 이현주 (2010), “수원국 공공 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 활용방안”, KOICA.
- 주동주 외 (2009), “선진국의 ODA 공여실태 분석과 한국의 대외원조 전략”, KIET.
- 정우용 (2015), “양허성 차관의 새로운 증여율 측정방식과 ODA 변화”, 『국제개발협력』, No.1.
- 하현선 (2014),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홍재환 (2012), “ODA 정책사업의 평가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2013), “초청연수사업평가”.
- KDI (2014), “국제학생 학위과정 초청 연수 종료보고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 KOICA (201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KOICA 연구보고서 18-223.
- KOICA (2015), 『ODA 아국 기여 효과』, KOICA 내부 자료.
- KOICA (2013), “DEEP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 ODA 연구팀.
- KOICA (2014a), 『한눈에 읽는 2013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 KOICA (2014b), “글로벌 CSR 프로그램 종합평가 보고서”.
- KOICA (2014c),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연구”, KOICA ODA 교육원.
- Arvin, B. M and C. Baum (1997), “Tied and United Foreign Aid: Theoretical and Empirical

- Analysis”, *Keio Economic Studies* 34(2), pp.71~79.
- Arvin, B. M. and S. Choudry (1997), “United Aid and Exports: United Aid Disbursement Create Goodwill for Donor Export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8(1), pp. 9~22
 - Carbonnier, G., A. Schonenberger, M. Azrin-Nejardan, L. La Spanda and M. Ouni (2012), 『Retombées économiques de l’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en Suisse:étude 2010』, Résumé synthétique, DDC/SECO,
 - Nowak-Lehmann, F., I. Martínez-Zarzoso, S. Klasen and D. (2009) “Aid and Trade: A Donor’s Perspectiv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7), pp. 1184~1202.
 - Roy, K and Y. Vaclanudi (1993) “Aid and Its Impact on the and Donor: A Case Study”, *Banca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185, pp.189~204.
 - Peter Moll, Patricia Geli, and Pablo Saavedra (2015), “Correlates of Success in World Bank Development Policy Lending”, World Bank Group(OPCS).
 - Schmacher, D. (1988), 『Entwicklungshilfe, Ausfuhr und Beschäftigun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iträge Strukturforchung, HECt 101 (Berlin: Dunker & Humbolt).
 - Vogler-Ludwig, K., S. Schonher, M. Taube and H. Blau (1999), 『Auswirkungen der Entwicklungszusammenarbeit auf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München: Weltforum Verlag
 - Zarin-Nejardan, M (2008), 『The Impact of Official Assistance on Donor Country Exports: Some Empirical Evidence for Switzerland』, Working paper no 08-01, Neuchate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Univ. of Neuchatel.
 - OECD (1991),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6), “DAC in Dates: The history of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OECD (2008), Effective Aid Management - TWELVE LESSONS FROM DAC PEER REVIEWS.
 - OECD (2009), Better Aid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 OECD (2010), DAC Guidelines and Reference Series: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 OECD Publishing.
 - OECD(2010), “DAC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 <http://www.oecd.org/dataoecd/5/0/44798177.pdf>.
 - OECD (2013), “Results Measurement and Management”, OECD Publishing.
 - OECD/DAC(2014), “Scoping the New Measur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TOSD)", DAC Meeting.

- OECD (2014), "Mainstreaming on Cross-cutting Issue", OECD Publishing.

[부록] 스위스 ODA의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효과 :

Carbonnier et al.(2012)에서의 GDP 효과 연구방법론

- bilateral ODA 승수

$$k_1 = \frac{v_1(b_1 - b) + (1 - a_1 - u_1)(1 + mb) + a_1}{1 - b(1 - m)}$$

- bilateral Cofinancing 승수

$$k_3 = \frac{v'_1(b_1 - b) + (1 - a'_1 - u'_1)(1 + mb) + a'_1}{1 - b(1 - m)}$$

- bilateral ODA의 GDP에 대한 효과

$$R_1 = k_1 + k_3 \left(\frac{COF}{APDB} \right)$$

- bilateral ODA의 고용에 대한 효과

$$R_E = \frac{R_4 APD}{q}$$

용어 정리

APDB : 양자간 ODA

ODA : 공적개발원조

COF : NGO 및 민간기업에 의한 matching fund

D1 : 스위스 내 국제기구에 지불되는 ODA 비용

a₁ : APDB액수 중 스위스 내에서 소비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액 비중

a'₁ : D1 중 스위스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사용된 비중

a''₁ : COF 액수 중 스위스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사용된 비중

b : 한계소비성향

b₁ : 스위스 내 외국인의 한계소비성향

m : 스위스 한계수입성향

q : 생산성

u₁ : APDB 중 해외로 보낸 부분 비중

u'₁ : COF 중 해외로 보낸 비중

y₁ : APDB 중 외국인에게 보낸 임금 급여 비중

y'₁ : COF 중 외국인에게 보낸 임금 급여 비중

y'₂ : ODA 집행에서 사용된 영업비용(leverage) 중 스위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임금에 지불된 비중